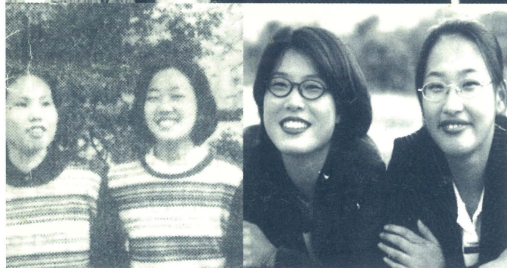


여대생

창간호. 1997. 4.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며
억눌리는 자에게 헌신적이며
억누르는 자에게 용감하며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며
동지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 치열히
순간순간을 불꽃처럼 강열히 여기며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진보하며
성실성에 있어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되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며
진실한 용기로 늘 뜨겁고
언제나 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바꾸어내며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수 있고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을 늘 기억하며
내 작은 힘이 타인의 삶에
윤기를 줄 수 있는 배려를 잊지 말고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 흐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여대생

창간호. 1997. 4.

| | |
|--------------------------------------|----|
| 부경여대협진군가 | 4 |
| 발간사 | 5 |
| 축하글 | 6 |
| 주제글 I · 간부생활 | |
| 정규적이고 원칙적인 간부의 생활을 정착시키자 | 8 |
| 새내기 여학생운동가를 위한 학습꺼리 | |
| 부산 · 경남지역 여학생운동 역사 | 10 |
| 전체운동을 강화하는 부문계열운동 | 15 |
| 대중사업 I | |
|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기에 앞서 | 18 |
| 주제글 II | |
| 과여학생운동 | 24 |
| 보론 - 과여학생부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27 |
| 97년 여성계가 궁극하다!—현행 여성관련 법안의 문제점 | |
| 노동법 | 3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입장 | 33 |
| 가정폭력 방지법의 내용과 방향 | 35 |
| 현행 남녀평등법의 문제점 | 37 |
| 8월을 준비합시다 | |
| 통일 3대 원칙 | 38 |
| 국가보안법이야기 | 41 |
| 대중사업 II | |
| 증군위안부 | 43 |
| 주제글 III | |
|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 50 |
| 부경여대협 소속학교는 이렇습니다. | 52 |

부경여대협진군가

Am(Dm) C(F) Dm(Gm) E(A7)



하루를 소중한 삶 — 지 못하면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Dm(Gm) C(F) Am(Dm) F(B^b) 1 E A7 2 E Am(Dm)




우리 어찌 식민지 청년이 오 어
우리 다짐 조국아 믿어 다 오 반쪽

G(C) Am(Dm) Dm(Gm) E(A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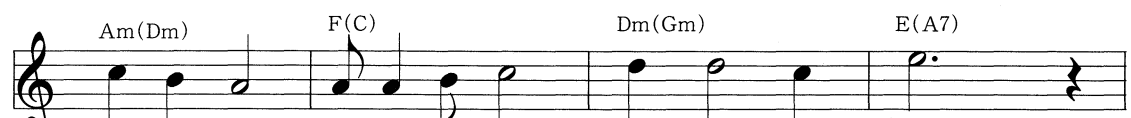
의 오랜 곁질 털어버리고

Am(Dm) F(B^b) G(C) Am(Dm) F(B^b) E(A7)



통일조국 여성해방 10만의 힘으로

Am(Dm) F(C) Dm(Gm) E(A7)



조국아 이제나를 불러다오

Am(Dm) G(C) E(A7) Am(Dm)



자주로 핀 해방대오 부경여대협
조국은 그대로 인해 찬란하리라

학우들 속에서 인정받는 간부다운 간부가 됩시다!

요즘 우리 부경여대협 소속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여학 간부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언제나 자신의 장에서 조직적으로, 창조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는 간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힘을 많이 얻습니다. 간부들 중에는 여학생 운동을 처음하시는 과여학생 부장님들도 계시고 자신의 청춘을 여학생 운동에 바치는 헌신적인 고학번 중앙 간부들도 있습니다. 여학생 운동이 아직은 그 대오도 적고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신념과 확신으로 당차게 활동하시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여학 간부들이 있기에 우리 여학생 운동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여학 간부들과 함께 97년 부경 10만 여학우의 삶을 고민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국하는 부산 경남 10만 여학우의 조직 부산경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장 구국의 선봉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유하영입니다.

부경여대협 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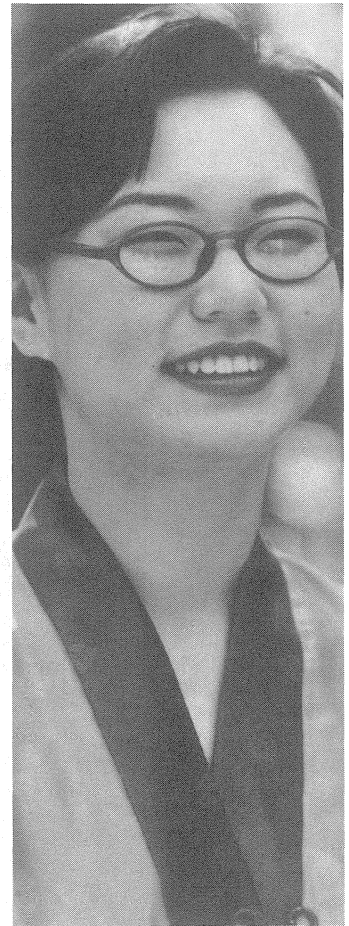
드디어 우리 여학 간부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간부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경여대협 간부지는 여학 간부들이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고, 토론할 교양지로서의 역할을 갖고있는 동시에 학교별 소식을 실어서 활동 공간은 비록 다르지만 언제나 한 길 가는 운명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는 소식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발간 되는 간부지가 우리 여학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학생 운동을 하는 간부들은 다른 골간의 간부들에 비해 두 배, 세 배 노력해야지만 그 활동이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사업을 집행하기에도 빠듯해 밥을 새는 것은 기본인데 전체 학생운동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속에서 부문운동으로서 여학생 운동의 과제를 잡아내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암울했던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정말 불꽃같이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여성 전사들을 생각하며, 자주적 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눈물로, 오기로 버텨내셨던 선배님들을 생각하며 자주적 여학생 운동을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활동을 해나갑니다.

간부지를 발간하면서 참다운 간부의 상이란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참다운 간부란 학우대중들 속에서 살아 숨쉬며 학우들을 중심으로 세워내는 활동을 할 때만이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 운동은 여학우들의 처지와 삶의 요구들을 받아안아 실천하는 운동이기 에 그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모순이라는 남한사회 여성이 짊어지고 있는 3중고를 깨뜨려 나가는 한 길에 후회없이 투쟁하는 여학 간부들이 됩시다. 투쟁!



부경여대협 의장/유 하 영

부경여대협 간부지 첫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따뜻한 봄날 화창한 날씨에 친구들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날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 조국의 처지는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고, 낮에는 학우들을 만나러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저녁에는 시민들을 만나러 거리로 나가게끔 합니다.

이런 빠신 일정속에서도 언제나 자기 혁신의 과제를 내어오고, 더욱 더 단단한 여성전사로 살아가는 10만 부경의 여대생들과 여학생 일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여학생운동의 한계점, 문제점을 이야기하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주체의 문제입니다.

“여학간부들의 사상성이 정치력이 떨어진다.” “간부 10명중에 순서를 따져보지면 여학간부들은 9,10등이다.” 이런 말들이 가끔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많은 부분 한계점 또한 있었겠지만, 언제나 어느 간부 못지 않게 열심히 생활하려고 했었고, 다른 옆에 있는 동지들을 챙기면서 투쟁의 거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여학간부들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자신의 냉철한 반성속에서 자기 혁신의 과제들을 내어웁시다. 김영삼 조기타도의 닳은 울랐습니다. 언제나 투쟁의 거리에서 빠신 사상의 환속속에서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고 이 땅의 당당한 여성전사로서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민중정권, 김영삼정권의 조기타도를 현실화해 내고, 역사 발전의 주인 주체로서 나갑시다.

이 길에 부경여대협의 간부지가 언제나 학우들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학일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완적이 될 수 있고, 여학일꾼의 교양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부지 첫 발간을 위해 여학일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전국 여학생운동의 모범으로 우뚝서는 부경여대협이 그리고 여학간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3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민족 동야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 김 정 숙

새벽비

어둠고 추운 새벽녘
소리지며 비가 내린다.
숨겨진 꽃다운 젊은이의 넋을
폭력의 강산 방방공공에 홀뿌리는 듯
통곡하며 비가 내린다.
꽃기는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의 집들을 대이며
겨울잠을 흔들어 깨우고
피눈물을 쏟는다
가슴 속 분노를 터뜨리며
사방팔방으로
이 잠복한 살인, 폭력으로 숨겨진 동지의 넋을
고이 간직하라고
울부짖으며 비가 내린다
어둠고 추운 새벽녘
깨어 있는 자 누구나의 눈시울을 적시며 비가 내린다
박력한 가슴에 비수같은 아픔을 꽃으면서...

부경총련 20만 청춘의 사랑과 자랑스러움으로 10만 여학우의 조직 “자주로 핀 해방대오” 부경여대협 대의원대회를 축하합니다. 식민지 조국의 하늘 아래서 더 이상의 굴종적 삶을 살지 않겠노라는 거부 의 몸짓, 저항의 몸짓으로 투쟁해왔던 여학생운동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특히 6년 전국 50만 여학우의 중심으로 2기 전여대협의 지도력을 구축한 부경여대협으로서 97년 사상의 쫓대를 가지고 전민중의 항쟁으로 김영삼 조기타도 투쟁의 선봉장으로 우뚝서야하는 4천만 민중의 요구를 받고 살인정권 폭력정권 김영삼에 의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열사의 피맺힌 절규를 못다이른 한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다시 한 번 3기 전여대협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모습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정권의 차별과 억압속에서도 일상의 생활속에서의 소박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가고 진정한 어머니의 강함을 지니고 조국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기 부경여대협 의장 유하영동지의 건강함과 10만여학우를 품어줄 넉넉한 가슴으로 힘있게 투쟁해 나갑시다.

**언제나 쫓대있는 조국의 자주통일 선봉대
6기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 연합 의장 최지훈**

우리들의 투쟁의 역사는 외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정의와 양심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 영원히 한길을 달려갑니다.

열사의 한을 가슴에 묻고 투쟁해 나갑시다.

열사의 한을 가슴에 묻고 투쟁해 나갑시다.

빛나는 청춘의 삶을 살아갑니다. 투쟁 !!

구속동지에게 6116 - 6101 부산시 북구 북부산우체국 사서함 58호 6022번 부경총련 의장 최지훈(경성대 총학생회장)
편지를 6008번 서부총협 임시의장 도경훈(동아대 총학생회장)

정규적이고 원칙적인 간부의 생활을 정착시키자

‘우리는 간부란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자구합니다. 그러면 뻔하게 얘기되는 것이 ‘부지런해야 한다’ ‘뭐든지 잘해내어야 한다’ ‘사상력이 투철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간부의 자세를 갖추어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조기타도를 위한 우리 민중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기가 새로이 시작되면서 대중사업도 구상해야 하고 그리고 학업도 무시할 수 없 구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사상단련을 이루어내는 학습도 진행되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선전전 등으로 인해 조·종례 사수도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단위 간부들의 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간부들 사이에 틈이 생겨 나아가 불신의 벽들을 쌓게까지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옆의 동지에 대한 불신은 큰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음을 당연지사입니다. 이에 97년 상반기를 힘차게 살아갈 우리 여학 일꾼들의 간부생활을 점검하고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조·종례, 회의의 사수는 학생회의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요즘 각급단위 학생회에서 정규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부들의 생활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투쟁의 요구들로 인하여 일꾼들의 힘은 한정되어 있고 일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은 많다보니 하나의 사안을 결정하는데 심도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기되는 선전전 때문에 조·종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침에 선전전에

서 얼굴보는 것으로 조례를 대신하고 종례 또한 가정 일, 개인의 사정등으로 전 간부가 모여 진행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조·종례를 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작은 꺼리들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의 간부단련을 하기도 하는데 시간에 쫓기고 일정에 쫓기다보니 사업중심의 논의들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집회, 선전전을 함에도 약속시간에 바로 시작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학우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불신, 외면하게 됩니다. 조금은 힘들고 바쁘지만 조·종례 사수를 통한 간부단련, 시간 엄수라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학우들에게 믿음을 줍시다. 그속에서 학우대중의 생각들을 읽어내고 학우와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즉, 조·종례 사수와 시간엄수의 모습은 학생회의 전투력을 강화시킴을 잊지 않습니다.

2. 지속적인 학습의 전개로 간부들의 사상력을 무장시키자.

단위의 일꾼들을 만나보면 대중사업에 대한 능력은 뛰어나지만 학습에 부재로 인한 사상무장이 결여된 간부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중심으로밖에 학우들을 만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여학생운동이라는 것은 학생운동에서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져 시시각각 변하는 여성계의 흐름과 기본적인 여학생운동의 원론을 숙지하지 않으면 여성운동으로 이어지는 여학생운동의 큰 흐름이 단지 여학생 권익보호만을 위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조성된 남녀평등의 분위기가 ‘여자들 팔자 편 세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의 여성을 위한 권익신장은 의미가 없

음으로 생각되고 그렇게되니 여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여학생회(부)의 폐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이어져온 가부장제도는 변함이 없고 자본주의라는 제도는 여성이 능력으로 사회에 진출하여도 여전히 여성의 의무는 '가정에서'라는 끈을 놓아주지 않아 우리 여성은 2중부담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삶은 피폐화되어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학 일꾼들이 학우들을 만남에 있어 '여학생회는 왜 있어야 해요?'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나설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학생운동가로서 당당해지려면 많은 간부단련의 장이 필요하고 그 하나가 지속적인 학습의 전개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로인해 여학간부의 모범을 창출하고 자신이 여학생운동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부혁신의 지름길입니다.


3. 여학생운동가의 주체발굴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자.

해마다 선거시기가 되면 여학단위를 포함한 부문단위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합니다. 여학생운동이 전문적이고 특수하여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알기에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해마다 구성되는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기전에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여학생회 소속의 간부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타단위의 간부들도 많이들 인식합니다.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여학생들의 특성인 높은 의무감과 성실함으로 내년이야 어떻게 되든 올해만하면 끝인데 라는 생각으로 힘들어도 혼자 삭이고 전전긍긍하다 내년이 되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간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또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조직의 발전을 내오기 어려운 실

정입니다. 이제 여학간부들은 지속적인 간부단련을 통해 운동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이것을 단기적인 결의가 아닌 장기적인 결의를 가져 새로운 여학생운동가들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간부의 헌신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총여 중앙은 많은 대중을 운동가로 키우겠다는 욕심보다 오랜시간을 통한 간부단련으로 핵심 일꾼을 키워내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단위마다의 창의적인 간부단련의 고민이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일정한 시기마다 여학생운동의 대중확산을 위한 여학학교를 연다든지 학습토론회, 발표회, 여성기관 방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학간부들의 헌신성으로 간부단련의 다양화하여 여학생운동의 핵심일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속에서 간부혁신을 내어옵시다.

끝내면서...

전여대협-부경여대협-각 학교 총여학생회로 이어지는 여학생 조직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사회의 제도들이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묘하게 우리 여성들은 억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대생'이라는 선택받은 계층에 있는 우리들부터 사회 구조의 낡은 틀을 깨어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학간부들부터의 준비로 시작됩니다. 조종례 사수, 시간엄수, 지속적인 학습강화, 여학생운동가의 핵심 발굴 등을 위한 노력으로 간부들의 자세를 혁신하여 여학생운동가로서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하게 학우들을 만나갑시다. 혁신된 간부의 자세로 학우들을 성실히 만난다면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학우들을 다시 학생회로 발을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부혁신의 시작을 우리 여학간부들의 모범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부산·경남지역 여학생운동 역사

1.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 의미의 여학생운동

89년 이후 '여학생운동은 여학생을 주체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운동'이라는 대명제가 여학생운동의 주체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들을 그 처지와 조건에 맞게 의식화, 조직화하고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조건에 맞게 의식화, 조직화하고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여학생들을 자주적인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이란 말 그대로 운동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억압적 처지를 깰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 의지가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어 운동이 전개됩니다. 여학생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라는 자신의 처지에서 다가오는 온갖 억압의 요소를 깨려는 의지가 학원내에서는 여학생운동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학생의 처지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여학우들의 처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학우들은 청년학생들과 함께 지니는 공통된 처지인 삶과 변혁의 주체, 구국 운동의 주력군, 학원의 주인이면서 청년여학우들만이 가지는 특수한 처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여학우들만이 가지는 특수한 처지는 사회, 그리고 학내 전반에서 민주적, 정치적,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자의, 타의에 의해 소외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첫째, 여대생은 청년학생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학생을 머리속에서 떠올려 봤을 때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각성이 낮고 학교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활동적인 여학생이 많긴 하지만 전체 여학생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대생의 사고방식 자체가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학교공부에 대해 적극적인 성실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실현의 의지도 높으며 이는 대부분의 여대생이 강한 취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실성이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인간관계와 사회현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설혹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도전할 용기를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봉건적 자본적 성이데올로기로 인한 '성차별'의 굴레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여학생들 끼리의 대화는 신변잡거나 이성관계에 대한 화제 일색으로 되기가 쉬운가?

남학생과 함께있는 자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여학생은 왜 적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이는 '여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며 고등학교 때까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채 주입받아온 성차별 교육이 여학생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여학생을 구설수에 올린다니 하는 남학생의 봉건적 의식도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올라가 살펴보면 이 또한 식민지 사회 구조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45년이후 미제가 남한을 강점하면서 지배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할 통치 방식을 고안해 냈고 이중 하나가 여성임을 구실로 하여 순종적이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입시키고 정치의식을 거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폐물이 되어버린 성관념으로 인해 늘 갖는 '성폭력'과 '성상품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식민지 여성으로의 차별화 억압을 깨닫는데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졸 실업난이 여대생에게가중되면서 3학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여대생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그러나 사회 진출 준비의 관점을 세워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개별화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학생들은 거의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양키 퇴폐향락문화의 부산물인 인신매매, 성폭행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차별적 억압 상황을 느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학우들의 특수한 처지와 조건 속에서 여학우는 자기 삶의 주체로, 변혁의 주체로 서고자 노력하며 바로 우리 여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로부터 비롯되는 그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여학우 스스로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며 반미, 사회민주화, 구국운동에서 청년학생의 선봉대적 투쟁에 우리 여학우들이 하나된 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자주적 여학생회 필요성은 제기 되는 것입니다.

2. 여학생운동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부산경남 지역 중심으로)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란 전체 변혁 운동의 객관적 발전 정도와 여성운동의 역량 성숙에 힘입어 학생운동내에서 선진적인 여학우를 중심으로 하는 여학생의 조직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연대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대협은 그 간 여학우들의 고립적이고 산발적인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하고 각 학교 여학생조직기반의 강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84년 이후 제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온 경험속에서 여학생운동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한 선진 여학우들은 86년 부천 성고문사건을 대하면서 반독재 전선에 여학우의 단결된 투쟁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조직적 대응력을 갖출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여학생운동을 정립하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제와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이라는 개념이 여학생운동 주체들에게 제기되어지고 논의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87년 하반기 부산·경남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 건설과 함께였으며 그전까지는 여성운동이라는 포괄적인 운동의 개념으로서만 논의 되었다.

90년 1월 전국 여학생 간부수련회를 거치면서 '여학생운동은 여학생들의 자주성을 드높여 내는 운동'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공유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 즉 여학생운동은 여학생을 주체로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 속에서 여성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시켰고 이것에 기초하여 여학생운동 또한 사회변혁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실제로 여대협의 결성은 각 학교마다 여학생 조직문제제기와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고 독자적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며 여성운동이 학생운동내에서도 자기 방향을 잡아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부산·경남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는 89년 전대협의 지역개편에 따라 부여대협이 13개 대학이 참가한 부울여대협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경남지역에서도 92년 경여대협이 마창, 진충으로 발전적 해체를 논의, 93년 마창여대협(건) 94년 마창여대협을 건설했고 진충지역은 경상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문대라는 특성상 여대협을 건설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경여대협에 대한 논의는 이미 92년부터 되어왔고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주체적인 역량문제로 건설되지 못하였다. 부경총련 출범식이나 영호남 한마당 등에서 부울지역과 경남지역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적으로 부경여대협 건설논의를 하였고 94년 초 대표자들이 모여 건설결의를 모았다.

부산경남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는 부울지역과 경남지역 여학생조직을 포괄하는 조직이고 94년 창립대의 원대회를 열어내어 강령과 규약을 인준하고 부산대 총여학생회장을 의장으로 옹립하였다.

94년 부경여대협을 약평하자면

첫째는 부산경남지역 여학생운동의 단일한 조직을 건설해 내었다는 것이다.

부경여대협은 부산·울산지역과 경남지역의 학간연대와 단일적인 지도의 필요로 건설되었고 부산울산지역의 구체적인 투쟁성과(이형자씨 공대위, 여성연대모임)와 경남지역의 여성농민회와의 연대(농활에서의 여농반의 모범) 등의 성과와 모범이 서로 전파되지 못하고 경남지역의 분리로 인한 진충, 마창, 부울지역의 불안정한 조직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였다. 몇년간의 논의 속에서 창립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내었고 이전의 일꾼만의 한마당 형식을 벗어나 학우들과 함께 출범을 선포했다.

둘째는 여성계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86주기 3·8세계여성의 날을 준비하면서 후원에서 벗어나 주최로 참여하면서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였고 준비회의의 참여, 일곱트기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여성단체에서 일정정도 여대협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대협만의 독자모임을 가지면서 여대협의 자체역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셋째는 골간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한 시기였다.

양애리 학우 투쟁에서 서부총협, 부경,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부문의 내용을 전체 운동으로 확산시켜 내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조국통일투쟁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제 2기 전여대협 통선대를 조직하여 정신대 문제와 일본내의 조선인, 특히 여학생들에 대한 폭행의 문제를 알려내었고 전체 기조인 민족대단결과 연방제 합의 확산의 내용속에서 함께 도출해 내었다.

넷째는 전여대협의 튼튼한 지역근거지였다.

부경여대협을 건설한 토대와 사상적 통일에 기반하여 제 6기 전여대협(건)의 지도력을 부경여대협에서 구성했다. 전여대협의 지역근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양애리 학우 투쟁의 전국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여대협 사업속에서 모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기 부경여대협은 먼저 명실상부한 여학생조직의 지도단위로의 역할을 하였다.

94년이 창립기로서 그 토대를 만드는 시기였다면 2기 부경여대협은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시기였다. 각 학교 여학생조직이 처한 현실(학교단위별로 전일적 체계를 이루지 못한 부분)과 각 학교마다 특수하게 처한 부분(체계가 골간학생회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여대협 중심으로 모아내었다. 그리고 여대협 체계를 안정화하여 정책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부경총련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였다.

94년도에 부경총련에 가입하면서 부경여대협이 부문 운동으로서 부경총련과의 결합지점을 고민하였으며 여대협 의장을 부경총련과 한총련 중앙위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였던 것이다.

셋째, 사회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안정화하였다.

부문운동의 생명은 그 전문성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내고 학원과 사회를 연결시켜 나가는 여학생운동이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전체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가진다고 했을 때 여학생 운동 또한 여성운동의 원칙을 틀어지고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96년 3기 부경여대협은 2기의 평가속에서 첫째, 부경여대협이 많은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인해 발생했던 지도와 총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개편을 시도하였다. 각 학교단위와 지구에 맞는 지도사업과 지구단위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총화를 하였다.

둘째, 여학생운동의 사상적인 규명을 현 여대생의 특성속에서 해명해 내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사상 아래 기초단위에서 여대협까지의 전일적인 체계와 통일단결된 기풍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

셋째는 이전시기 폭넓고 산만하게 진행되던 여학단위 투쟁을 96년에는 정신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결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힘차게 모아내었다.

그리고 조통투쟁 속에서 정신대문제를 남북공동투쟁으로 가져가고자 하였으며 엽서쓰기 투쟁과 자교투쟁,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학우들 삶 속에 다가가지 하였다.

그리고 매한달에 한 번 일본영사관 항의방문을 진행하면서 부경여대협 단위의 집회를 열어내고 일상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정신대 투쟁에서 또한 성과적인 지점은 연대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여학단위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 결합과 지지를 얻어내었다.

그리고 전여대협의 모범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전여대협의 지도력을 부경여대협에서 이루어내었고 전여대협의 중심으로 정신대투쟁의 일상화와 연대항쟁 성희롱사건등에서 지역여대협의 전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3기 부경여대협은 바로 부산·경남지역에 맞는 여학생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던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97 여학생운동(부경여대협)의 전망

이제 4기 부경여대협은 부계운동의 전망을 밝혀내고 10만 여학우의 삶의 지표로써의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그러하기 위해 4기 부경여대협은 첫째, 지구운동의 안착화로 명실상부한 지도단위로서의 역할을 할 때이다. 여학생운동에서 지구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을 좀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우리로 이어지는 하나가 되는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지도와 총화를 기반으로 전망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제 4기 부경여대협은 지구 대표자 회의의 안착화와 의장단 회의, 대표자 회의로 이어지는 전일적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이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성억압된 구조와 서구 페니미즘적 여성운동을 바로 잡기 위해 성모순 척결 투쟁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는 미제와 미제의 앞잡이 김영삼 일당에 의해 우리 여성은 자신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 대학가에 만연해 있는 퇴폐, 향락적인 문화와 여대생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사회제도(취업,법제도 등)

그리고 서구문화와 전통적 가부장제 속에서 우리 여대생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현 남한사회의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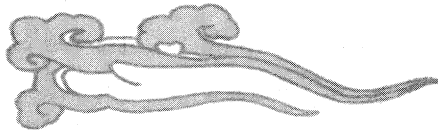
그러하기에 4기 부경여대협은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학우들과 함께하고 삶속에 녹여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여성단체와의 연대투쟁의 상을 올바르게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작년 정신대 투쟁을 진행하면서 여대협은 여성단체와의 논의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올해는 이러한 논의구조를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내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연대투쟁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는 여학생 일꾼들의 간부혁신을 내어와야 한다.

간부혁신이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운동의 헌신성은 기본이며 현재 여대생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성이 낮은 것, 그리고 계급의식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대협 단위의 지도사업과 올바른 총화가 필요하다. 골간 학생회와의 문제 또한 여학 간부의 헌신과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운동을 강화하는 부문계열운동

갈수록 다양해져만 가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지도하기 위해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전체 변혁운동 또한 여학생운동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운동에 강화해 낼때만이 발전한다. 라는 생각이 합니다.

부경여대협외의 지도력 구축과 단위실정에 맞는 여학생운동의 구현에 대한 논의를 펼쳐내면서 모든 여학 일꾼들과 함께 각 대학에 맞는 여학생운동, 전체 여학생운동의 상들을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토대의 규정으로 생기는 상부구조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역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 법률이라는 기본적인 요소 이외에도 종교, 성별, 문화, 전문직 등 상부구조의 다양한 영역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역시 인간의 자주적 삶을 질곡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급·계층별 운동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은 여러 양태로 운동에 참여하게되는데 이것을 부문계열이라 합니다. 이런 부문계열운동에는 종교운동, 언론출판운동, 교육운동 등이 있으며 전체운동의 보조역량으로 역사속에서 통일전선 운동의 강화에 그 동력으로 작용하며 우리운동

1. 부문계열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부문계열운동의 성립배경

인류의 역사를 흔히 투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항상 굶핍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낡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인간의 목적 의식적인 투쟁과 활동을 운동이라 할 때 이것은 주로 계급 계층별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질서라는 것이 토대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경제적 생산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해관계로 계급 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급 계층별 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구분하며 각 운동영역은 전체운동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부분운동이

의 역사속에도 검증되고 있다.

학내 운동 내에서의 부문계열운동의 정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문계열운동이란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 이외에 또다른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운동 내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서 근거하는 학우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입니다. 학생 부문운동은 학생운동 속에서 학생이면서 또다른 사회적 처지가 중첩되면서 또다시 처지에 근거하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킴으로써 학생운동을 더욱 풍부화하며 사회 부문운동을 활성화 전투화시킵니다. 생활·학문·투쟁의 공통체 자주적학생회는 몇몇 개인의 백만학도 스스로 자주성을 옹호하고 백만학도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기반해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하기에 부문계열운동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부문계열운동의 역할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그 처지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올곧게 수렴하고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골간조직을 내용적으로 풍부화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단대-총학생회-지구-지역으로 이어지는 골간조직 외에 횡적 조직이 요구되어지며 여기에 부문계열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횡적인 부문계열운동의 실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문계열운동의 실천적의미를 토해 부문계열운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을수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기여합니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삶에 기반한 다종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 대변,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학우들의 정서와 취향에 맞게 투쟁 형태와 방식을 여러 가지로 구사해야 합니다. 학생 부문 계열 운동은 학우들의 부문별, 계열별 정서와 취향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투쟁형태를 아주 폭넓고 유연하게 내올수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학우들의 구체적 생활적 요구에 근거한 조직건설을 아래로부터 이루어 내어 한총련의 조직역량을 강화합니다.

부문계열운동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로부터 그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학생구국운동에 펼쳐나섭니다. 민족자주교육쟁취, 민족문화의 대중화 등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는 백만학도의 일반적, 특수적 이해를 담보하면서 한총련이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전체 구국운동을 확대 강화합니다.

교대나 사범대 학우는 전교조와 여학우들은 여성 단체와 연대 등 부문계열조직은 사회운동 단파들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적 애국적 사회진출을 이루어 낼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학우대중을 민주적으로 의식화, 조직화합니다. 정치적으로 먼저 자각한 학우를 포함하여 앞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우들의 애국민주주의에 기초한 전문별 내용으로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구국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자질과 의지를 갖춘 훌륭한 일꾼으로 단련시켜냄으로써 구국운동의 확대 강화를 활발히 벌여나가면서 사회운동에도 자극을 주며 관련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구국운동을 한층 강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한총련 조직 강화와 측면에서 부문계열운동의 본래의 역할과는 다른 또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각 지역, 지구, 대학간의 차이를 극복해내는데 부문계열운동이 그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전대협 6년의 역사를 이어 한총련으로 오면서 지역, 지구간, 각 대학간의 차이를 극복시킨 소중한 성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심지역, 지구, 대학과 여타 지역, 지구, 대학간의 역량 차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문계열조직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과, 단대, 동아리, 학술, 문화교류, 등을 통해 한총련 백만학도의 연대를 이루어 내고 자주, 민주, 통일 의 새 조국 건설과 한총련 조직 강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어 그 차이를 줄여 갈 수 있습니다.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부문계열운동에서 말하는 독자적인 자기 내용은 그 자체가 부문계열운동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총련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실현에 있어서의 백만학우의 이해와 요구입니다. 상호연대성을 높이는 공동 노력은 부문계열의 독자적인 내용이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해 들어가는 공동의 과제들을 도출하게 하며 이것이 전체

학생운동의 질적, 내용적 발전을 내어오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부문으로 전체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일꾼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부문이 가지는 특수성을 잘 고려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준비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하든지간에 사람을 준비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됩니다.

둘째, 부문계열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주로 골간단위에서의 인식의 천박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애기를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고 부계운동의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장에서건 자신의 처지에서 나오는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수 있는 관점을 우리 일꾼들부터 만들어 갑시다. 자신이 하는 운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학우들을 만나도 그들을 건인

해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단위에서는 전체 성원들에게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세울수 있는 교양사업을 필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아직도 부문계열조직 건설 강화가 중요하니깐 지금 있는 것 다 한 번 엮어보자는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범단위를 잘 세워내고 이를 전체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조직운동의 관점일 것입니다. 부문계열조직의 건설,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전체 단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연대의 틀속으로 묶어세우는 것보다 보다 잘되고 역량있는 단위조직들과 연대하면서 모범을 창출해나가고 이를 전체를 확산시켜나가는 속에서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를 내올수 있도록 하여야함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 전체 운동을 강화해 갑시다.



부문계열운동이 전체운동을 강화한다?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기에 앞서...



1. 들어가면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수량화하는 것은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한대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분단과 직접적으로 연

관이 있는 미군부대가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그들의 군화발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헤아린다면 그 자체는 오히려 또하나의 고통일 뿐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남쪽에 무력으로 강범하면서 미치게 되는 총체적인 영향하에서 구체적인 원인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미군기지가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파악한다는 것이 힘들다.

한국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실체이다. 기지란 단순한 군대와 군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과 지역의 지배와 통제를 위한 군사력의 실체로서 자국의 이해를 실현해 내는 정치,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군대의 기지는 식민지민족의 대중운동을 진압하며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 반혁명적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남한에 있어 37,000여명의 주한미군은 미국의 남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1차적 지점이다. 이러한 미군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180여개 지역을 근거로 우리 민족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군사적 고려속에서 지역의 일상적 삶을 질곡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80여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37,000여명의 군인 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지의 총면적이 약 9,000만평에 달하고 있다. 미군주둔의 비용은 연 28억달러이다. 이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 편성상황은 주둔군을 중심으로 주변에 번성하는 기지촌의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2. 기지촌은

기지촌이라고 하면 보통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와 상권을 일컫는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 이태

원, 의정부, 동두천, 송탄, 부산 등을 들 수 있다. 이곳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거의 시골이었으나 군사상 중요한 것이 되면서 기지가 들어와 번성하기 시작하는 도시로 그 지역의 토박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어 엄청난 상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상권의 형태가 미군기지에 기생하는 형태로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미군기지가 없어질 경우 그 곳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지촌은 그 기생성으로하여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즉, 미군의 퇴폐, 향락적인 문화가 기지촌을 통해 유포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아이들의 교육, 주변에 형성된 매춘 여성들, 혼혈아, AIDS파급 등이다.

3.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사례

동두천 미군기지

1.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게 된 농민들

지난 3월 15일 동두천시 광암동 석목 마을에 미군이 사격장을 짓겠다고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땅에 탱크를 배치하고... 토지대장에도 분명히 농민들의 소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조건 마을을 나가라니? 이유인 즉 그곳이 미군공여지이기 때문에 미군에게 사용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나 그 누구로부터 자신의 땅이 미군공여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군공여지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보상도 없이 한 술 더떠 4월 23일자로 동두천시에 공문을 내려보내 석목마을을 포함 인근 6천 4백평을 조속히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미군공여지' 니까 철거하라!

국제케미칼은 피혁원단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두천시 미2사단 인근에 95년 3월 완공 예정으로 공장을 건축했다. 70%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95년 2월 돌연 국방부로부터 건물철거지시가 내려왔다. 국방부의 설명은 '미군공여지'라 미군당국에 사용권이 있고, 미군측에서 철거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국제케미칼은 1년여동안 공사가 주관됨에 따라 외국바이어들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중국의 제2공장 건설계약이 불이행되었고, 기술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인가? 최근 국제케미칼측은 공여지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국방부 등에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로 "언제라도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즉각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공장건설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96년 4월 23일자로 동두천시에 재차 초청을 요청해 와 그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3) 미군의 전선 때문에 기형이 된 건물

동두천시 생연동의 땅 소유주가 95년 6월 3층 건물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 명령이 내려왔다. 난데없는 철거명령에 놀란 건물주가 그 시연을 알아보니 역시 '미군공여지'. 건축부지위로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고압동력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미군이 항의하자, 95년 9월 건물 철거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건물주는 공여지책으로 변경, 기형적인 건물이 되어버렸다.

평택의 K-55 미공군 기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 6백여톤의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흘러 보내 근처 개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하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군쪽은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쪽이 미군측에 단속이나 처벌법규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묵살한 채 방류하고 있고 정화시설 설치비용마저 한국쪽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2년 1월과 7월 부대안에서 방출되는 오·폐수를 수거하여 수질오염도를 조사하니 모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각각 기준치 60ppm보다 훨씬 높은 121ppm을 기록함에 따라 같은 해 세치레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다. 당시 평택군청 쪽은 "미군쪽의 폐수방류를 단속하려해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는 단속권한이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미군부는 환경오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치외법권 시대"라고 단속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미군관계자는 "한국정부에 정화시설비 설치비용으로 1천2백만달러를 요청했으나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거절되었다"며 "주한미군군비를 주둔국에서 부담하는 추세에 비추어 정화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도 한국쪽에서 적극 부담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대구나 동두천, 포항 등 미군부대가 있는 한반도 전지역이 대부분 이와 같은 실정이다.

4. 주한미군 범죄 만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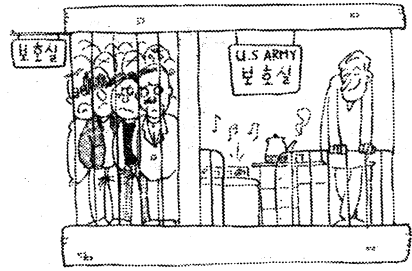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와 있다는 생각으로 오만방자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민을 멸시하고 한국민의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군들의 범죄 동기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범행이유들은 '아무 이유없이, 강간을 피해도주하자, 싸움하는 것을 말리자, 잠을 깨웠다고' 등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범행동기는 '아무 이유없이' 라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밝힌 '주한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에 따르면 1967년부터 87년까지의 미군범죄는 39,542건의 범죄에 43,183명의 미군이 가담했다. 그리고 1992년 국회국정감사 법무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1991년 한미해정협정이 개정된 이후 92년 8월말까지 미군범죄는 1,197건이다. 이 통계를 분석하면 미군범죄는 하루 평균 5건 연 평균 2,000여건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이며 1945년 미군주둔 이후의 범죄를 모두 합치면 10만건이 훨씬 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더구나 한국정부의 통계는 경찰에 접수된 공식적인 통계이지 은폐되기 쉬운 성범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범죄, 미군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미군측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않은 범죄 등을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더구나 1967년 이후에는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처벌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것을 감안할 때 1967년 이전 즉 한국정부의 처벌권한이 없었을 때 미군범죄가 얼마나 극심했겠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윤금이씨 살해사건,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이기순씨 살해사건 등 엄청나게 많은 미군범죄가 저질러졌고 저질러지고 있다. 미군범죄는 특수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기지촌'이라 불리는 미군주둔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범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미군범죄는 미국당국과 미군사병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작태, 굴욕적인 한국정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라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산되고 있다.

5. 기지촌 여성

우리사회에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의 수는 300만을 넘은지 오래다.(현행 운용되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있는데도 매매춘은 증가하고 있다. 이 법이 윤락여성에 대한 처벌을 통해 윤락행위의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을 파는 여성뿐 아니라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처벌, 윤락행위를 조장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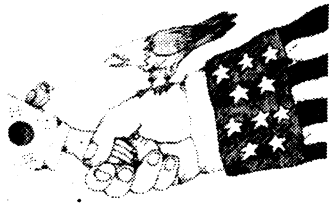
착취하는 자에 대한 처벌, 매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정확한 통계수치는 알 수 없으며 요즘 나날이 변창하는 향락사업 속에서 그것을 속속들이 파악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매매춘사업은 더욱 은폐된다. 기지촌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기지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지촌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제 2, 3의 윤금인들이 있는 데도 말이다.

소외되고 은폐된 땅, 기지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왜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첫번째 경우는 강간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는 여성들이다.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성윤리 구조가 많은 여성들을 기지촌으로 내몰고 있다. 두번째는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기출을 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상경하여 공장의 노동자생활을 하다 들어오는 여성들이며, 세번째는 사회적으로 질시를 받는 이혼녀, 미혼모의 경우이다. 네번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기출한 여성들이 있으며 다섯째로 향락산업의 번창과 성에 대한 가치관 혼란, 잘못된 황금만능주의 유포, 개인 이기주의의 병폐로 인해(어찌보면 자의적으로)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이다.

기지촌여성들의 연령층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하지만 사회적인 냉대와 질시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 포주들의 학대속에서, 미군에 의한 폭행과 강간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반이다. 이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다량의 음주와 흡연을하여 심각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가장 큰 꿈은 국제결혼이다.

6. 기지촌의 아이들

기지촌아이들의 구성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러나 기지촌 매춘여성의 아이인 혼혈아들뿐만 아니라 포주의 아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인 한국아들에게도 기지촌이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우선 아이들이 저질스런 미국문화와 폭력적인 군사문화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다. 미국의 가장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판치고 있는 기지촌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또한 미군에 의한 어린이 성폭행, 강간의 위험이 높고 아이들이 성에 관해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군에 의해 무시를 당하고 민족문화를 배우기도 전에 미국문화에 속해서 자라나고 있으니 앞으로 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이 헬로우문화가 우월하고 좋다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 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기지촌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는 혼혈아이들의 문제이다. 기지촌에는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



난다. 1946년 이후 태어난 혼혈아의 숫자는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지만 약 7만명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클럽에서 생활을 하는 기지촌여성들이 혼혈아들을 많이 낳지 않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송탄에서 아파없이 자라는 혼혈아들은 약 53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식의 출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미군과의 동거관계가 깨어지면서 부양능력이 없는 매춘여성들에게서, 조국의 버림으로 인해 대부분 해외입양이 되고 있다. 기지촌지역의 혼혈아들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언어생활, 잦은 부모의 아동 구타로 인한 정서불안과 돌봄의 손길이 없어 행동이 난폭하고 한국아동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며 말을 잘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자라는 이들 혼혈아는 우리나라의 타인종을 거부하는 생활문화에 의해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미군측의 기지촌 주변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들 혼혈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매매춘여성과 혼혈아는 이 땅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버림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혼혈아들은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이'로만 자라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의 편견과 무관하지 않다. 즉 여성들이 혼혈아이를 미국의 아이로 키우려하는 것은 그 아이가 혼혈아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당하는 '튀기'라는 놀림과 사회적인 무시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이 깨지지 않는 한 혼혈아들의 반쪽 모국인 한국을 영원히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 또한 본질적인 문제인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또다른 반쪽인 피를 가진 아이들은 계속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며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을 해매고 다녀야 할 것이다.

7. 지역 주민의 문제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육문제이다. 이것은 기지촌이 가지고 있는 기생, 기형성 속에서 미군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상권의 형성으로 거의 그대로 유입된 미국의 퇴폐, 향락적인 문화에 노출된 아이들이 저질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문화를 뒤로 한 채 미국문화를 쫓아가게 되며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인근도시로 유학(?)을 보낼 정도니 가히 그 정도가 얼마인지 짐작할 만하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의 문제는 암암리에 많이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이다. 밤이 되면 미군세상이 되는 곳에서 밤거리를 돌아 다니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미군의 밤처럼 여겨질 수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누가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군인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인보다 미국인을 더 편드는 경찰들과 미군헌병들에 의한 미군 범죄에 대한 불안이다. 이것은 윤금이씨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수는 실로 다양하면서 많다. 이것에 대한 불안도 불안이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드는 불안은 엄청나다.

그 외에도 각 시도에서 기지촌을 향락도시로 규정하고 위락시설 유치에만 신경을 쓸 뿐 문화시설등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이 없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8. AIDS

에이즈는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치닫고 퇴폐적인 서구의 문화풍토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에이즈는 성격으로 문란한 서구사회의 동성연애자들이나 걸리는 병으로 알아왔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것이다. 즉, 너무도 안일한 생각으로 에이즈의 심각성을 방관해 왔었고 이것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국한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침입해 오는 경로는 주한미군이다. 이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들에게 에이즈는 일차로 전파되었다. 다른 감염자 역시 외국인과의 성적으로 접촉한 경우 또는 미군주둔지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법안'은 예방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문제가 많고 특히 감염자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질병의 특성에 따르면 즉, 감염된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들에 의해서 국내에 유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관광객이나 미군에 대한 법적 예방조치도 없이 본 질병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특정여성들에게만 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인신구속의 강제성을 띤 예방법안은 오히려 국민검진 기피현상과 환자가 감염사실을 은폐하게 하므로 에이즈예방의 역작용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에이즈는 미군을 상대하는 하급위안부들에게 전파되고, 미군과 한국남성을 접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신생아에게까지 에이즈가 감염된다. 이러한 에이즈 예방법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철저히 검사하면 봉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에게 항체에이즈가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놓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강제수용하게 하는 무방비책이라 볼 수 있다. 에이즈의 예방대책은 기본적으로 에이즈가 전염되는 통로를 막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에이즈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인식을 토대로 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9. 맺으면서

한반도는 세계자본주의체제속에 편입되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자본주의국가라는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제국주의침탈에 신식민지 상황, 여기에 민족분단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의해 자주적 발전이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한반도주둔과 대외 종속적인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야기된 산업형 매매춘에 의해 매매춘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지촌의 모습과 그 안의 구성원들의 모습은 한반도의 사회구조가 만들어 낸 기형적인 구조물이다. 그러므로 기지촌여성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는 단지 여성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며 국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제도와 체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지촌의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이 찾아지는 그 날이야말로 진정 한반도 안의 여성과 인권이 해방되는 날일 것이다.

과 여학생운동

10여년에 걸친 여학생운동의 역사는 전여대협과 각 지역 여대협, 각 대학 총여학생회와 단대여학생회를 조직, 건설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10여년의 여학생운동을 총화해나가는 시기에 있는 우리 여학 일꾼들에게 이제 기간의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더 우리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대중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중요한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럴때만이 기층 학우들의 삶을 책임지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시켜내고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은 대표체로 자리 잡을수 있을 것이다. 기층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중앙만의 비대함보다는 기층 여학단위의 강화과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그것이 바로 과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과 여학생운동은 총여—지역여대협—전여대협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과여부의 역사, 지위와 역할, 현재적 위치에 대해 고찰해 보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과 여학생부(회)의 역사

85년 이전 시기 학도호국단이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을때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의 과여부는 그 지위와 역할이 여학우들의 복지향상, 권익 신장과 행사때의 뒤치다꺼리의 일을 하는 정도로만 고민하는 수준이었다.

85년 이후 다시 학생회가 부활되고 총학생회,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면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과여부를 만들

게 되었다. 이때부터 과여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여성문제를 과 여학우들과 함께 인식,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여부(회)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의 명확한 지위와 역할이 규명되기까지도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해 최근 몇 년전부터 서야 과여학생부(회)의 올바른 지위와 역할이 규명되고 이에 따라 과여부 제자리 찾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10여년의 여학생운동의 성과점을 올바르게 챙기지 못한 곳에서는 과여부들이 해체되고 있어 새로이 과여부를 재건설해야하는 문제도 나서고 있다.

2. 과여부(회)의 건설의 필요성

여학우들은 여성으로써 순종적이고 소극적이며 비주체적으로 '가정'이라는 굴레속에서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아 왔지만 잘못되고 그릇된 모순을 옳게 직시하고 이를 진취적이고 패기있게 극복해 가려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먼저 자신이 처한 처지를 인식하고 사회의 편견과 모순을 더 빨리 파악하고 이를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한편 혜택받은 계급으로서 더 높은 지위로의 상승에 호조건을 갖춘 여학우들은 종종 '나혼자만 잘하면'이라는 허위의식,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의식속에 빠져 들기도 한다. 지금사회는 가부장제 봉건 이데올로기를 타파해나가는 듯 하면서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여성도 능력을 갖추어 사회로 진출해도 여성 본래의 역할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여성의 저임금화, 여성노동력

을 산업예비군으로 묶고 여성 비하를 골자로 한 성의 상품화를 노골화 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게 그것이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그 본질을 간파하기 힘들고 대충봐서는 '여자들 팔자편 세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문제이고 자본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들의 술수도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에 의하여 과여부(회) 건설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속에서 가속화되어 거부장제 억압으로 여성, 남성 모두가 결코 자유로울수 없는 지금의 혼란을 여학우, 남학우가 함께 문제의 본질을 파악, 고민속에서 대안을 찾아가면 기간의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으로 길들여진 여학우들의 적극성,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주성을 건인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여성, 남성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과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 남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의 사회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또한 많은 남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 과여부(회)의 지위와 역할

1) 지위

첫째, 과여부는 단순히 여학우들의 복지시설 향상, 권익신장 차원이 아닌 진정으로 여학우들의 자주성을 고양해 낼 수 있는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학우들이 직접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학생회의 주인으로 나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과여부는 학생회의 집행부이다. 그러므로 과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여학우들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실현방도를 풍부히 고민해

야 한다.

셋째, 과여부는 과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단대, 총여학생회로 잘 총화하고 고민하는 단대 운영위이며 총여학생회의 확대 운영위이다.

2) 역할

첫째, 여학우들은 20여년을 걸쳐 소극적이고 순종적으로 살아가도록 길들여져 왔다. 그속에서 가정과 사회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슈퍼우먼을 꿈꾸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옳게 보지 못하는 오류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 이러한 여학우들을 당당한 자신의 삶에 주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여성 문제는 여학우들의 삶 뿐만 아니라 남학우들의 삶도 왜곡시키고 굴레지워 놓는다. 여성 문제는 학교, 직장 생활, 연애, 가정, 결혼 생활 등 어느곳 어느때나 개인에게 집단에게나 우리의 삶(생각과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과 학우들속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올바른 인식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4. 과여부의 현재적 모습

과여부의 활동을 고민함에 있어 현재적 상황을 잘 총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내놓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역시 각 대학마다 상황의 차이가 있겠으나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대학의 과여부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 총화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학교마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공통적으로 묶을수 있는 과여부의 현재적 모습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각 과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 학도호국단 시절 과여부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과에서부터 과여부 나름의 사업정책과 계획하에 과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성문제 인식, 과여

부 주위로의 조직화등 구체적인 실천 투쟁정도를 모색해가는 것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다.

이는 과여부의 지도 내용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과 세련된 방식으로 그 과에 적당한 사업의 내용을 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과여부의 전문적인 자기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과마다 차이가 많으나 보편적인 과에서는 과여부의 사업을 과내에 정착 학우들속에서 보다 대중적으로 풍부화 하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과에서는 자기 내용이 없이 학생회에서 제기되는 사업을 분공받거나 다른 부서 사업과 결합을 하면서 여부 사업의 맥을 못찾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단어나 총여에서 과여부의 올바르게 풍부한 사업을 구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지도하며 풀어내고 또한 각과에서 창출된 모범을 널리 전파하는 것으로 풀려질 수 있을 것이다.

3) 과여부의 주체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

과여부사업은 과여부장을 비롯한 그 주체들이 얼마만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잘 생산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람이 없어 줄지에 떠밀림식이고 그러다보니 떠밀림을 당한 여부장은 얼굴도 보이지 않거나 처음의 열정을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서 다음해는 또다시 그것이 악순환 되고...

이는 사람을 끈기있게 지도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총화하여 실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더더구나 준비된 사람이 없는 단위는 차근차근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여성문제란 무엇이고 과여부는 왜 필요한 건지부터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끊이지 않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한다.(여기서 과여발특위의 구성이 제기된다.) 단대 여

학생회(부)의 운영위를 통한 집단지도나 개별지도를 결합시키면 더욱 좋은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를 이끌어갈 인자를 올해 과여부장과 함께 육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는 소모임이나 연구회, 과여부들로 의화될 수 있다.

4) 과여부가 과여학우를 자기 대중으로 갖지 못한다.

철저히 과여학우들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부장 개인이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과여학우들의 진정한 조직으로 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합속에서 논의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5) 과학생회, 단여, 총여가 함께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여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과학생회와 단여, 총여와 잘 배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과학생회는 여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연계 또한 되지 못해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과학생회 간부들도 가부장제 사회에 길들여진 사람이므로 여성문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여부의 지위와 역할에 동의할 수 있도록 과여부, 단여, 총여가 주체가 되어 여부와 끈기를 가지고 잘 교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단어나 총여에서도 자기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대중적 영역을 넓히는 길이다. 과여부에 대한 지도사업에 개별히 비중을 두고 당위적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내실있는 지도를 하여야 한다.

5. 대안과 앞으로 과제

어떤일이고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과여부장님들은 여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여부 사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여부원이나 소모임을 통해 여학우들을 확실한 자기 대중으로 묶어야 한다. 이는 바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어렵지만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나는 것이니
 칸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과에 맞는 사업에 대
 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학우들의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배드민턴 채 구입, 한달에 한 번
 언어 정화운동 또는 음단패설 없애기, 올바른 대학문화
 만들기 등의 창발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와 단여의 유기적 결

합을 통해 올바른 총화속에 여부의 사업을 함께 고민하
 고 과여부장님은 과회장과 단여의 지도를 받으며 보다
 풍부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자. 이에 앞으로 과 여학
 생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4기 부경여대협에서는 학교 단
 위에 맞는 과 여학생부(회) 발전 특별 위원회 건설을
 제기한다. 과여발특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장에
 특화하여 다루고자 한다.

보론

과여학생부 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과 여학생부 발전 특별 위원회(이하 '과여발특
 위')는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과 여학생부의 점층
 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 체계입니다. 갈수
 록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는 다양해져가고 있어 과

여학부나 총여학생회가 더 이상 여학우들의 권익신장, 제반복지 사항에만 주력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
 니다. 여자라서, 남자라는 받는 성적 억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성계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는 호주제나 상속제와 같은 악법규정을 철
 폐하고자 하고 최근에는 부모성(姓) 같이 쓰기운동을 공식화하여 우리 여성들의 깨어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요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자주적 요구는 사회 여성들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학내에서도 다양하게 양성화되어 나
 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학우들을 만나는 과 일꾼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너무도
 당연히 요구되어집니다. 총여학생회 또한 학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기 쉬운 총여학생회 불필요성에 기인한 폐지론을
 불식시키고 총여학생회가 명실상부한 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우뚝서기 위해서 과여학부의 올바른 자리매김
 이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따라서 과여학부의 발빠른 움직임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담보를 위해서 총여학생
 회 산하의 과여발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과여학생부 발전 특별 위원회

1. 구 성

과여발특위라는 이름에서 과여학부장들만 구성하는걸로 할 수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 함께 여학생운동을 할 수 있
 는 사람을 폭넓게 규정하여 과여학부, 단대 여학부장, 관심있는 과 여학우들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음 합니다. 물론
 구성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지위 및 역할

보론 : 과여학생부 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과여학생부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가는 속에서 단대 여학생회(부), 총여학생회 강화를 해들어가야하는 과여발 특위는 먼저 과여학우들이 스스로 주인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주성 함양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내 여학우의 진솔한 요구를 받아안는데 있어 어떻게 최선을 다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여학우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켜 나갈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실제로 과여학부장님들이 의욕에 넘쳐 무슨 일이라도 여학우를 위해 시작하려해도 이전 여학부의 모범적 사례가 없다보니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과여학부 활동의 모범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고민을 중심으로 보면 과내로 확산시킬수 있는 과여발특위의 활동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학생회에 무관심해 가는 학우들을 학생회로 두리로 묶어내는 일 부터 시작하여 기층의 학우들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가져간다는지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앞서 말한것과 같이 과발특위의 위원들이 과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과여학생부장님을 비롯한 여학 일꾼들이 주도적 고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론적 무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여발특위 구성의 목표입니다. 부산지역 D대학교는 단대 여학생운동이 여학생 대표 체라 할수 있게 여학생회가 건설되어 있어 단대 여학생 대표가 학우들 손에 의해 선출됩니다. 따라서 단대, 과별 특수성에 맞게 과여학부 지도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단대 여학생부가 회장, 부회장의 지명에 의한 인선이 이루어지다보니 단대 여학생들의 대표체의 역할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과여학부 지도사업을 위해서는 과학생회와 이해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 힘이 잘 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단위의 실정이 단대 여학생운동을 책임지는 사람이 내용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리 채우기식으로 여학부장이 세워집니다. 이런 상황이니 과여학부장을 지도해야할 단대 일꾼의 수준이 서로 비슷해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여학부 지도사업을 단대에만 의존하여 단대여부장들의 목줄을 질것이 아니라 총여 중앙에서 바로 과여발특위 구성과 함께 정례화된 모임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적 담보를 진행하고 과에 맞는 특수한 여학부 사업을 위해 타과 여학부장들과 함께 폭넓게 논의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때 있어서 앞될 것은 모임이 정례화되면 단 한명의 일꾼이 와도 학습이나 논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임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여 모임의 일꾼들이 부담없이 꾸준히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



니 처음부터 과여발특위를 구성함에 있어 통제할수 없는 정도로 많은수를 구성하기 보다 정말로 여학생운동에 열정을 보이는 핵심일꾼들로 꾸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시기마다 올바르게 성과점과 한계점을 밝혀내 과여발특위의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모범사례

모범사례 하나 전남 지역의 D대학교는 96년에 과여발특위를 구성하여 15명의 과여부장으로 시작하여 2주마다 정례화된 모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과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폭넓게 가져 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결함이 잘되던 여학부장들이 하나들 떨어져 갔지만 적은 수가 모여도 모임을 반드시 진행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15명이던 사람이 5명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단대 여학생회장, 과일꾼, 총여 집행부로 97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총여 중앙에 과발특위 위원장을 두어 작년 못지 않은 활동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범사례 둘 부경지역은 97년에 과여발특위 구성이 각급 학교 단위에 제안되면서 실제로 눈에 띈 활동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경지역의 D대학교는 전체 여학생 대표자 회의속에서 과여학부 강화 소위원회 구성을 통과 시켜 과여학부가 움직이는 설문지 조사를 과여학우 대상으로 진행하고 과학생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제안하여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외의 다른 학교의 과여발특위 구성에 따른 모범은 하반기 간부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로 과여발특위 구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핵심은 꾸준히 운영을 하는속에서 성과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짚어내 여학생운동가를 지속적으로 단련시켜 나가는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 활동을 가져가는 여학 일꾼들의 이후 전망 또한 발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과발특위 구성으로 학교마다 과여학생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일대혁신을 기대합니다.

노동법

노동법

허울좋은 김영삼 문민독재정권은 집권후,

93년 집권초기부터 구포열차사건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건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터졌는데도 어떤 대안이나 근본부터 뿌리뽑을 해결안을 내놓지도 않고 이후 계속해서 초대형의 사고들로 수천 명의 국민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94년 한총련 100만 학도와 온 국민의 가열한 투쟁을 간단히 무시한 채대통령 직을 걸고서라도 막 갓다던 쌀 시장을 어처구니없이 개방하였다.

95년 4천만 국민이 십년이 넘게 투쟁해 왔던 5·18학살자 전원처벌을 위한 투쟁을 이전까지는 폭력 경찰의 가혹한 진압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운운하며 자신의 업적인 양 가로채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여 5·18 학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였다.

96년 자신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5%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를 외치던 연세 대 95학번 노수석 학우를 토끼몰이식의 진압으로 사망케 하였다. 또한 연말에 경제의 파탄을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며 노동법 안기부법을 기만적으로 날치기 통과 시켰다.

97년 권력형 부정비리의 총체적 모습을 실감케 한 한보부도의 비리 척결과 김영삼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조선대 96학번 류재을 학우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얼마나 많은 국민의 희생을 앞으로 요구할 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허울좋은 문민독재 정권이다. 앞서 말한것처럼 김영삼정권은 이처럼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정권이다. 김영삼정권은 우리 사천만 민중을 죽음의 굴레로 밀어 넣고 있는 정권이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식의 사고는 이제 벗어나고 전 민중이 떨쳐나서 독재정권 김영삼정권의 조기타도를 실현시켜내는 것이 우리 국민이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길에 조국을 사랑하는 백만청년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도 투쟁의 고리를 늦추고 있지않는 노동법 개악철회를 여성피해 조항 중심으로 살펴보자.

지난 12월 26일 노동법과 안기부 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연일 악법 철회를 위한 파업집회가 이루어졌다. 여당중심의 날치기 통과는 엄연히 불법이라면 전면 철회를 요구하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 전 여당의원과의 합의로 여야 단일안을 내놓았다.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긴 채 몇 마디 말 바꿈으로 여야는 단일안을 내놓고 또다시 4천만 민중을 우롱하였다. 노동법이 개악되어 피해자 0순위인 '여성'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법의 개정법안과 여성의 피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연대시 30

개정노동법안

1. 복수 노조 - 상급단체 3년 개별기업 5년 유예
2. 정리해고 - 경영악화, 기술혁신 업종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때 허용
3. 무노동 무임금 - 사용자의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금지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
4.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금지 5년간 유예
5. 파업시 대체 - 사업내 및 외부인력 대체, 신규 하도급
6. 해고 근로자의 조항원 - 중노위 재심판정 때까지
7. 변형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 따른 2주단위 주 48시간 노사서면합의시 1개월 단위 주 56시간 허용
8. 노동쟁의 - 이익분쟁으로 한정
9.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 병원, 은행, 시내버스, 지하철 포함
10. 노동위원회 위원장 직위 - 노동부 소속 차관급

이러한 기만적인 날치기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온 국민의 거센 항의와 투쟁이 빗발치자 여야 합의 안으로 재 개정을 강행하였지만 날치기 안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노동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온통 개악의 역사이다.

그나마 처음의 노동법은 지켜지지는 않았을지언정 법 자체로서는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익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군사독재 정권을 거쳐오면서 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니 소위 문민정부라 칭하는 정부가 그것도 날치기로 또다시 개악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하나다.

“노동법 개악의 원칙 무효화 !!!”

그 명백한 요구를 기만적으로 재개정이라는 허울로 무마하려 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하여야 한다. 노동법 개악은 천만 노동자와 사천만 국민에게 가해오는 생존권적 압박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 이중으로 가해지는 압박은 가히 치명타라 할 수 있다. 여성에게 특히나 치명타를 주는 세가지 조항을 살펴보자.

첫번째로는 변형근로제이다.

실제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가정에선 가사일을 전담하는 주부로서의 활동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때 변형근로제는 개정안에서 날치기 안을 따르되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제를 둔다고 하더라도 여성근로자에게는 직장의 일도 가정의 일도

노동법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개악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근로시간 8시간에 여성 노동자는 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있었다. 즉 하루 최대의 근로시간은 10시간 이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정리해고제

요즘에 고개숙인 아버지니 뭐니 해서 “아버지 신드롬”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특히나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갑작스럽게 잃은 40~50대의 아버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1차적인 피해자가 여성 노동자라는 사실은 별로 알고 있지 못하다. 여성들의 취업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경제가 어려워 집안을 책임질 남성들도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여자가 감히 어디 취직을 하겠냐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취업문에 천신만고 끝에 통과하더라도 또다시 우리 여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명예퇴직제와 이번 개악된 정리해고제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정리를 하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성인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바로 여성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려는 결단으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악안에는 빠졌지만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는 생리휴가무급제

이는 노동법 개악의 독소조항에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견주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생리휴가를 받아 쉴 때는 노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성립한다.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증표이며 곧 어머니가 될 몸이라는 상징이다. 그러하기에 이 나라를 이끌 차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모성보호를 생각해서라도 생리휴가의 유급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김영삼은 온갖 만행으로 온 국민을 억압하고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더니 그 중에도 우리 여성에게는 두배의 억압들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가 된다. 그러하기에 전국의 50만 여대생들이 먼저 떨쳐 일어나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는 우리의 고통은 자신이 비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줄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정권의 반여성적 작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김영삼의 조기타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모두 죽고만다는 각오로 김영삼 조기타도의 투쟁을 우리 여대생들의 선봉으로 일구어 가자!



1. 성폭력 개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정의되어야 한다.

강간죄에 대한 해석이 '목숨을 건 반항'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은 여성의 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성폭력의 개념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을 침해한 범죄로 개념이 정리되어야 한다.

2. 형법 제 297조의 강간 정의 중 '부녀를 강간하는자' 를 '타인을 강간하는 자' 로 개정해야한다.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 가해자를 남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상 강간을 여성 정조 침해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경우 소수의 남성피해자와 동성강간 피해자는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강간은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범죄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부녀'를 '타인'으로 개정해야 한다.

3.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조항을 신설하고 신설조항에 미수범을 포함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때 이 조항은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특수강도강간, 강간등 살인치사에 미수범을 추가시켜 그동안 성기삽입 여부를 중심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친고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대부분이 친고죄인데,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력 유발론, 정조이데올로기, 저항미약 비난 등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이 고소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고죄의 존치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은폐된 피해자만을 양산하고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친족의 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강간, 강제추행 만이 아니라 준강간, 강간미수등을 포함해야 한다.

6.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조항에 장애인의 부류를 신체장애, 정신장애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7. 직장내 성희롱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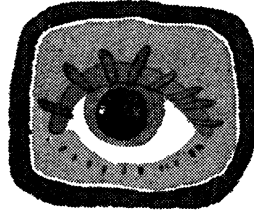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를 성폭력특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모두 명시해야 한

성폭력관련 법률

다. 단 성희롱의 규제대상을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서 '동료나 부하직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건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변경해야 하며 형량도 최저 500만원으로 상향 조종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성폭력과 노동권 침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성폭력특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8.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해야하며 피해자 절차참여 및 신변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9.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지난 95년 12월에 통과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호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는 못한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가정폭력중 아내구타를 다룰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칼이나 흉기등을 사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은 커녕 관여도 하지않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 9항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이 법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동법 제34조 3항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 조치가 너무 미약하여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2.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

(1)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조치

국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한다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래의 부모에 대한 교육, 가정내 서비스 증가,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상담, 폭력발생시의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 제공, 개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유관단체간의 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 확대 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한다.

(2)가정폭력에 대한 2차적 조치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개입의 가장 1차적인 조치는 피해자를 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즉각 격리명령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이든 사법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 내지 처분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1) 학교, 병원, 상담소 등에서의 의무신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가해자에 대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과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피난처 제공과 지원 서비스의 제공, 자조집단의 증가, 의료서비스와 정보의 제공 등 사회복지적 대응 및 치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가정보호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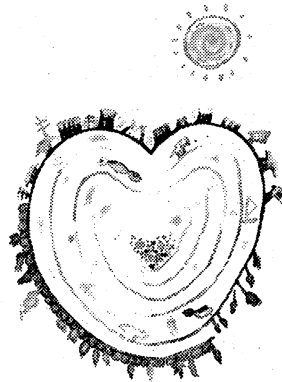
1)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의 일반형사처분 전 단계나 혹은 일반형사처분의 내용으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과 '민사적' 실행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이러한 명령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법률상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이에 관한 관련 당사자 및 경찰관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둔다.

(4)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설치, 일시보호소의 증설 설치, 취학 아동의 학업 문제, 각종 정보제공, 법률적 지원, 직업준비 프로그램, 생계비와 주택서비스에 대한 지원, 피해여성과 아동 등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한 기금마련, 의료적 지원등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본 방향은 가족 구성원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 뿐 아니라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국가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사회연대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법률의 제정만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정내 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3차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은 명실공히 성역할분업적인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고, 남녀 공통의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 조치를 통한 남녀노동자 인간의 존엄, 근로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고용의 기회 및 대우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만을 금지하는 편면성을 가지고 있어 남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인사제도, 비정규직의 여성화, 승진 및 배치에서의 교묘한 성차별 등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승진, 배치, 정년, 퇴직, 해고 등에 부당한 강요, 암묵적인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인격,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여성노동권 침해요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평등법에 규제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갖는 근로감독관과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평등법상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평등위원회는 현재 조정은 할 수 있으나,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에게 강제하지 못한다. 쌍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현 육아휴직은 무급이다. 더구나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신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사용율이 낮다.

일곱째, 벌칙규정이 미흡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관련 법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 3대원칙

자주의 원칙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에 있어 자주의 원칙이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해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첫째가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민족통일은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며 분단으로 인해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에 가장 절실한 이해를 가지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분단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마당에 외세에 의한 통일을 바란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한국 지배의 실제적 토대가 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여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에 의한 한국 내정간섭을 종식시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의 자주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매관독재정권의 외세의존정책을 저지시켜야 한다. 민족의 이익에 기반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믿고 민족을 팔아버는 민족반역자, 민족분열주의 세력을 척

결하는 문제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나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나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민족의 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열을 싫어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전체 민중이 통일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남과 북, 해외 7천만 민족이 자주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 단결된 투쟁을 전개했을 때 통일은 7천만 민족의 것으로 되며 7천만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

평화통일의 원칙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한반도 전체를 황폐한 잿더미로 만들 것이며, 한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것이다. 통일은 민족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이지 물리력으로 일방적인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다. 또 민족의 공멸을 자초하는 무력통일은 7천만 민족의 통일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7천만 민족의 바라는 바도 아니다. 따라서 통일은 전민족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평화적 통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제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은 군비축소를 실현해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또 전민족



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철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한미간에 실시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핵 군사훈련이며, 한반도 신장상을 고조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92년에 체결된 (상호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도 전시상태로 되고 있는 휴전체제를 종결짓고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북-미간에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주변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동을 하

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민족의 대단합,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의 사상이나 이념, 제도에 앞서는 존재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 수만은 우영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으며 때시기 여러 가지 계급적, 지역적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민족임을 부정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라는 것은 입증된다. 따라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통일의 실현에서 반드시 지켜

야 하는 원칙이 되는 것은 조국통일의 문제가 어느한 계급·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7천만 민족 모두의 문제이고 남과 북, 해외에 있는 전민족의 힘을 합친 거족적 투쟁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민족내부의 적대와 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적인 악법과 통일 논의의 정부 독점을 위한 '창구단일화정책'을 철폐시켜야 한다.

또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이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인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전민족의 자주와 민족의 대단결로 민족적 공존, 공영, 공리를 실현하자는 이념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것이다.

조국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를 꾸립시다.

매년 8월이면 분단조국의 아픔과 북녘땅의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조국통일의 전사가 되어 한반도를 뜨겁게 통일의 열기로 만들어 갑니다. 올해로 우리 민

족의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은 53년을 맞이하고 한총련 통선대 10기, 전여대협 통선대 5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연대항쟁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통일전사에 대한 정권의 극악한 탄압이 예상됩니다. 그렇다하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들을 굽힐순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많은 준비들을 하여야 합니다. 97년은 8월에 가까워서 통선대를 꾸려선 않됩니다. 그것의 이유는 앞서 말한것처럼 갖은 탄압이 예상되므로 주체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여대협의 모범지역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도 8월철의 여전사를 꾸림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상의 죽대를 세우고 있는 부경지역에서부터 그 모범을 만들어 갑시다. 학교별로 전여대협 통선대를 지금부터 꾸리는데 박차를 가합시다. 통일에 대한 사상학습을 시작하고 체력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통선대 참가야말로 여학일꾼들을 단련시킬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학생회 사업의 대부분이 남녀 구별이 없지만 통선대는 순수한 여학생들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통선대를 결의하는 사람들은 사상학습, 체력단련 이전에 집안 문제의 해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야기

전대들이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법이길래 그러나요?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살아온 지 벌써 한 세대가 훌쩍 넘어 두번째 세대를 지나 조금 있으면 세번째 세대에 접어 든다. 강산이 다섯번쯤 바뀌고 정권도 그만큼의 숫자로 바뀌었다. 그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티어 온 것이 한둘이겠는가. 국가는 국가보안법만큼 시기적절하게 자신의 빛깔을 바꾸어 가면서 끈질기게 생존해온 것도 드물다. 이승만 독재하에서는 독립 투사를 때려잡고 친일분자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국가보안법으로 4·19혁명 직후에는 다시 조금 완화 개정되었다가 5·16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자 기존의 국가보안법에 반공법이라는 쌍둥이가 생겨서 더욱 악랄하게 수많은 애국자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80년 광주를 거쳐 탄생한 전두환 독재하에서는 다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통합되었으며 (물론 반공법이 가진 독소조항을 그대로 뺀이들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단일화된 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조금씩 자신의 이빨을 속으로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사가 품고 있는 독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비록 얼마 안 있어 민족의 통일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질 법률이지만 아직도 시퍼렇게 날이 서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내용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좀처럼 삼그려들 줄을 모르고 계속 민주인사와 통일인사를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법률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보안법은 1장 총칙, 2장 죄와 형, 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4장 보상과 원로 의 전 4장 25개조의 법률로 구성되었다. 많은 글을 담을 수 없는 관계로 중요한 것 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1장 총칙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제1조 (제1항 제2항)—이법의 목적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국가나 국민전체가 아닌 분단독재세력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라는 말의 또다른 표현이다. 이는 6공당시의 날치기 통과때 신설되어진 2항에 의하여 드러난다. 2항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이 법률이 그동안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여기서는 반국가 단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수 있는 경우를 첫째 정부를 참칭하거나 둘째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국내의 결사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조건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를 참칭한다는 부분인데 만약 어떤 사회집단이던지 스스로를 어떤 나라라고 부르며 우선 반 국가단체로 될 요인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있다. 실제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성화신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검찰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제2장 죄와 형의 제 3조 (제1항-제5항)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간부나 지도적 지위를 가진사람은 사형-무기-5년이상의 징역,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가입을 권유한 사람은 물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음모한 사람들도 처

8월을 준비합시다!

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 속으로 이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만해도 국가보안법 사범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의 문제는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다면 그 수괴인 김일성, 김정일을 사형시킬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통일에 절대적으로 장애가 된다고 볼수 있다. 자신을 사형시킬 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누가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제7조 (제1항-제6항) 찬양고무

이 조항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를 위해 단체를 조직할 경우 처벌하여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런 내용을 문서나 책으로 제작 복사 운반 판매 판매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수범과 예비범도 한자도 처벌한다.

이 조항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조항이며 가장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수많은 막걸리 보안법사건을 양산한 주범이기도 하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르거나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는 말들이 모두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었으며 헛김에 한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말도 처벌대상으로 되어온 것이다. 특히 제4항의 내용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처벌인데 그동안 대학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막스주의 이론서들을 소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적 목적과 이론 추구를 위한 판매는 죄가 없고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법조문의 자의적 해석이다. 이는 법조문에 쓰여진 단서조항에 따른 것인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는 단서조항은 실제로 사람의 생각과 양심을 판단해야 하는 난점을 안고 있다. 그가 한 행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자본론 책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여도 우리의 뛰어난 검경은 우선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 책을 들고 다니는지를 고도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판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그중 한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지고 다른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무조건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표현하고 생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결국 통일에 엄청난 의식적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의 모습속에도 같은 민족으로서 충분히 좋은 점을 발견하거나 동조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같은 겨례이기 때문이다. 한 핏줄을 가진 사람이기에 가지는 당연한 민족감정도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는 이 조문은 대표적인 반통일 독소조항인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도 많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알고보면 나머지는 모두 겹데기이고 3조에서 10조에 이르는 조문이 핵심적 내용이다.

한나라의 헌법보다 우위에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은 문민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은 과거 군인들을 능가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은 그래도 자신의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하여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 그러나 민간인이 권력을 잡고난 다음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너무도 당연한 듯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 놈이 더한다는 격이다. 과거 스스로 독재 통치의 희생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지능적이고 세련되게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말이다.

통일의 장벽 국가보안법을 현 정부는 철폐시키기는커녕 안기부법을 개악하여 더욱더 가혹하게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통일을 이루지 못할것이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한 민중의 자주적 삶을 기대할순 없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줄기찬 폐지투쟁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니 뭐니해도 통일바람이다. 겨울 눈이 봄 바람에 녹아내리듯이 남과 북의 동포애와 민족단결이 강화되어가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백만 청년학도가 올바른 원칙으로 단결하여 4천만의 선봉투쟁이 되어 통일의 길을 한걸음 앞당겨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인권유린 자행하는 국보법을 철폐하라!!!

종군 위안부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한 폭력과 파괴가 세상을 지배할 때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95년 종전 50년을 맞은 독일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물음에 희망의 언어로 답을 한 경우이다. 독일의 콜 총리가 직접 '홀로코스트 뮤지엄(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방문해 만행의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가하면, 바이체커 대통령은 '과거를 보지 못하면 미래 또한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전범 처리 전후 배상을 약속했다. 이스라엘 국민 또한 과거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켰다. 독일 국민의 과거 청산 노력에 대해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며 양국간의 진정한 화합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 즈음에서 종전 50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걸어온 일본과 한국의 모습을 돌아본다. 역사적 채무 관계는 독일-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건만 가해국의 철저한 과거 청산과 피해국의 진지한 과거 극복 노력은 없다. 종전 50년은 오히려 망언과 저자세, 오만과 피해 의식이 뒤범벅된 굴절된 역사의 연장이었다.



이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의 중심부에 '정신대'로 불리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놓여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종군 위안부들이 어디로 얼마나 끌려갔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남태평양 섬들에 위안소가 있었고,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군대가 마련한 위안부의 일차적 임무는 성적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때와 장소와 어느 부대에 속하느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임무가 부가되었다. 물론 입구에 줄지어선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위안소에 따라서는 빨래를 해야 했던 곳도 있고 탄약을 날라야 했던 곳도 있다. 간호원 조교가 되어야 했던 위안소도 있다. 오기나와 도카시끼섬에 있었던 배봉기는 1945년에 들어선 미군의 공습이 심해지자 산과 골짜기를 헤매며 나뭇잎, 열매, 풀뿌리등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부상한 군인을 간호해야 했고, 위안부 노릇도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파라오섬에서는 종군 위안부가 군복을 입고 싸우기까지 했다. 제일 마지막까지 기관총을 쏜 사람은 조선인 위안부였다고 한다.

그들은 '일본뺨', '조선뺨', '쿠냥' 이라고 불렸다. '뺨'란 여성의 국부를 가리키는 중국의 속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 군대에게는 그들이 여성의 국부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표면적으로 위안소는 일본 군인의 성욕을 처리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러나 위안소에 따라서는 그 뒷면을 보면 군대와 업자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했다. 아편도 취급하였다. 일본 경찰과 군이 중국인 상대로 아편을 퍼트린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동북부에서 중국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임금 대신 아편을 준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 한다.

어떤 방법으로 정신대가 아편을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으나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 그리고 수치심으로 도저히 일본 군인을 받을 수 없을 때 아편을 피우곤 했다고 한다.

위안소 정책은 공창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나온 발상이었다. 다만 위안소에 끌려간 조선 여성들은 (일본 여성을 제외한 중국, 대만등 현지 여성들은) 대가를 받은 일이 없거나와 군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패전과 더불어 휴지가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위였다.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

김학순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은 열일곱살에 빼이징에서 양아버지와 헤어져 군용 트럭에 실려 밤새 달려 어떤 중국식 집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식'을 치르자 다른 한국인 여자와들 함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나이든 여자의 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여자는 그들에게 일본 이름을 하나씩 붙여 주었는데, 김학순은 아이꼬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들이 원래 있던 위안소는 티에삐전이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기적으로 부대의 이동을 따라 전선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돈도 받지 못했고 그저 간신히 먹고 입는 것만 지급받는 정도였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운동 목표와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

1)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운동 목표

1990년 11월 16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된 이후 우리는 세 가지의 운동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왔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인류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는 역사적 선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중에 혹은 점령지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난 강간과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와 군이라는 공권력이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한 성노예 제도였고, 이 제도를 위해 13~18세의 소녀 약 10~20만명이 강제로 끌려가서 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노예생활을 당했다. 그리고 일본 패전 후에 이 여성들은 유기 살상당하였고, 일본군이 기록조차 없애버림으로써 역사속에서 폐기처분당했다.

우리는 인류역사속에서 이처럼 추악한 행위를 발견해 내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이 범죄 행위가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 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간적 존엄성을 되찾아야 하고, 그로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다.

둘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가장 처절한 피해 현실에 대해서조차 일본군의 사죄와 법적 책임, 배상을 받지 못한 한일 관계는 평등한 한일 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우리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한일 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진정한 아시아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이 진행되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속에 은폐되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그리고 아시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한일간의 평등 관계정립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코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 정대협의 활동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범죄 인정,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사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 위령비 건립, 역사 교육,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7대 요구를 제시하며 활동해 왔다.

① 대 일본 정부 활동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정부, 국회를 상대로 로비, 압력 활동, 증언 집회, 시위 등을 전개해 왔고, 특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요 정기 시위는 작년에 200회가 넘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94년 2월 일본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일본검찰측으로부터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 배상 의무는 끝났다고 발표를 하자 정대협은 국제법하에서 개인 배상의 의무를 판결받기 위해 국제중재 재판 제소를 결정하고, 일본정부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식 거부당했다.(95년 1월 24일)

② 대유엔활동 및 국제 활동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식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 중에 있다. 정대협의 유엔활동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 범죄 행위로 공인되고 있으며 일본이 법적책임(사죄, 배상, 책임자처벌)을 져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유엔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분회 등에 제출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형태를 조사하도록 임명한 특별보고관인 반보벤 교수의 보고서에 일본군의 보고서에 일본군의 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도록 1993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며, 그 보고서는 94년 2월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되었다. 1994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 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를 임명하였고 쿠마라 스와미는 95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국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있다. 1994년 6월 아태지역 각료회의에서는 전쟁중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1994년 11월 23일, 국제법률가 협회(ICJ)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 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95년 말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의 '쿠마라 스와미의 보고서'는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전 세계 여성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백한 국가적 사과의 배상을 촉구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일본은 쿠마라 스와미의 보고서가 채택될 시 자국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의 진출이 불리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국이미지 관리를 위해 쿠마라 스와미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등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해 말썽을 빚었지만 보고서는 채택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3) 아시아 피해자 및 일본 여성 단체와의 연대 활동

① 남북 여성의 연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한 북한 일본 여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남북 여성이 정신대문제에 대해 서로 연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등 국제활동에서도 남북이 함께 포럼, 공청회개최 등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② 일본 여성단체와의 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일본의 여성단체 그리고 학자들, 변호인들을 포함한 양심적인 일본 국민들과의 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국민의 연대와 이해를 촉진시키고 있다.

③ 아시아의 연대

1992년 8월 10-11일 서울에서의 제 1차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연대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 이후 연례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며 연대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이다.

④ 피해자 할머니의 생활 보호 활동

-92년 12월 1일,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모금한 것은 93년 7월, 62명의 피해자에게 250만원씩 지급하였다.

-정부가 일제하 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시불 5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지불,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등을 94년 5월, 국회에서 통과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기타 할머니 복지 활동

정대협은 할머니복지위원회를 기구내에 조직, 할머니들의 병원알선, 상담, 주거문제, 장례절차 등의 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단체중 하나인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에서는 '나눔의 집'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 현재 5명의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4) 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와 경과

| 7 대 요 구 | 진 행 상 황 |
|---------------------------|--|
|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의 전모를 공개하라 | 일본정부의 태도변화 · 그런 일 없었다며 부인 ·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이 한 일이다 · 군과 국가개입인정, 개인배상 할 수 없다 · 일본정부 1차 진상조사발표(92.7.4) : 강제성 부인 · 2차 조사발표(93.8.4) : 강제성인정, 그러나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자업자, 군·관의 주도적관여는 부인하는 등 부분적 강제성 인정 · 위안부 총숫자/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명령체계/위안소 생활상태, 패전후 조치 등에 대한 자료공개는 하지 않음 민간연구자 활동 · 위안부제도에 일본군, 국가의 주도적 관여, 명령계통조사 |
| 범죄를 인정하라 | · 위안부제도사실을 인정 · 그러나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취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노동금지조약, 노예제금지조약위반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위안부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라 | · 90.5. 노태우대통령방일시 일천황 "통석의 염" · 92.1.8. 미야자와 수상 방한 "반성과 사과"의 뜻 · 93.11.5. 호소카와 수상 방한 "진사드린다" · 95.2. 연립여당의 국회부전 결의안조차 자민당등이 반대 · 국회결의사죄와 개인에게 사죄안하고 있음 |
| 법적으로 배상하라 | · 배상할 수 없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을 만들어 민간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불하겠다 |
| 위령비를 세워라 | 진행되지 않음 |
| 교과서에 명기하라 | · 1994년부터 7개 교과서에 부분적으로 포함,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성, 성격등은 없이 단순한 용어 언급을 피상적으로 기술 · 1997년 3월 다시 삭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
| 책임자를 처벌하라 | · 일본검찰에 정대협과 피해자가 94년 2월 7일에 제출한 책임자처벌고소, 고발장을 접수조차 거부 |

5) 올바른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

①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의 철회요구

피해자와 피해국이 모두 반대하는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안을 철회하도록 만들기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에서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피해자와 피해국운동단체들의 반대연대집회를 조직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내용과 의미를 알리는 사업이다. 정대협에서는 이 권고문중 중요부분(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배상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명시한 부분)을 번역하여 법률가, 국회의원, 중요행정기관, 언론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토론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셋째는 한일시민사회의 양심적인 세력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민간위로금안 반대세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정대협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시민단체의 동참을 유도할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특별히, '해방5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의 시민단체, 민족단체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동참시킬 예정이다.

넷째는 해결이 늦어지면서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당하고 계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② 국제 중재 재판소에 제소 합의 요구와 특별배상법 제정 요구

정대협은 25번에 걸치는 회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PCA(국제 중재 재판소)에 가져갈 것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의 정대협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 배상, 책임자처벌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제기구로 하여금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행위가 범죄행위인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조약으로 완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현재 일본의 배상책임은 없는가? 등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대협으로서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지고 일본정부가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였으나 국제 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었고, 한국정부가 제소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민간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국제재판은 PCA뿐이었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일본정부가 중재 합의에 이를 것을 대비하여 할머니들의 위임을 받아 94년 9월 한일 PCA변호인단에게 일본정부와의 합의를 체결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PCA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들의 요구를 95년 1월 공식거부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시점에서 정대협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PCA제소에 응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죄와 배상, 책임자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서두르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다.(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한 별도의 국내법제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죄, 배상, 처벌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특별법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유엔 관계 활동 강화

유엔관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94년 10월 9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제에 대한 해결없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 서명의 결과를 3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여하여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 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④ ILO를 통한 제소 모색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금지조약위반이다. 여기서 강제노동이란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위협하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무'를 말하며 특수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세밀한 제한과 조건을 두어 강제노역을 인정하되 이를 위반할 수 없도록 조약에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추정연령 18세 이상 및 45세 이하 성인의 건강한 남자만이 강제노동에 징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의하여 자행된 일본군 '위안부' 충원과 관리가 위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은 무조건 금지된다(제11조)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위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1932년 11월 21일 조약 제10호로 비준하였다. 그리고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33년 11월 21일의 일이었다. 강제노동조약은 일단 효력을 발생하면 그때부터 10년동안 조약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 1944년 11월 21일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조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실행되던 거의 전기간동안 이 조약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자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헌장 제 26조에 의한 제소로써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제노동금지조약 불이행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대협은 유엔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ILO에 제소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의 확산과 국제적 압력을 가중시킬 길을 모색하고 있다.

⑤ 진상규명사업의 진전과 자료관 준비

일본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당시 연합국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대협은 사학자, 사회학자,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식민지시대자료분석을 통한 백서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정신대연구회와 함께 할머니들의 2차 증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이 패전후 중국에 버리고 온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일본의 비인간적행위가 피해자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 5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생활을 그린 다큐멘터리영화와 자료전시를 위해 '나눔의 집' 옆에 전시관을 준비중이다.

⑥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정부는 정대협이 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답변에 65년 한일협정에 책임자처벌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과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PCA중재소송에 대한 지원과 ICE가 권고한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65년 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도록 운동을 펴고자한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정부로 하여금 최소한 ICE의 권고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서 있다. 일본정부의 한치의 변화도 없는 오만하고도 후안무치한 태도는 우리를 분노하게도 하고, 허탈하게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싸워왔다. 다시 한 번 힘을 가다듬어 우리들이 연대한다면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여학생운동의 역사가 올해로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년의 역사속에서 퇴보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앞선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여학생운동이 단순히 여권 신장운동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힘들게 건설했던 총여학생회라는 조직이 해체되어 위원회나 총학생회 산하의 여학생부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학생운동이라는 부문을 통해 전개해 나가면서 여학우의 처지에서 비롯되는 특수성들을 견인하여 여학우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일구어내어 전체운동을 강화하는 그 한길에 서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년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항상 제기되는 것이 여학생운동을 하는 인자 재생산의 문제입니다. 선거 시기마다 사람을 세워내는 때에도 사람이 없어 골간의 일꾼들을 때려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보니 복잡한 이해관계들로 신경이 곤두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학생운동을 발굴함에 있어 새내기때부터 교양, 학습을 진행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야하는 중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제기로서 95년 여성문제를 연구하는 소모임 건설이 시급히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앞다투어 학교마다 여성문제연구회가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95, 96년 2년을 지나면서 굳건히 소모임을 굴러온 단위로 있고 발전적 해체를 진행한 단위로 있습니다. 4기 부경여대협 산하의 소모임들을 정리해 보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일상적 사업이 없고 현 시기에 대한 협의를 보지 못해 단순히 여성문제

에만 국한된 시각을 보이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느껴지는 것은 학교마다 12년을 지나면서 많은 한계와 오류를 겪어 97년이 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학습의 일정을 잡는등 눈부신 발전이 거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모임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4기 부경여대협에서는 27기 제안을 드립니다.

1. 소모임 · 사회단체 연대하기

소모임은 학기초가 되면 바빠집니다. 새내기들이 시도때도없이 방문하여 그때마다 소모임을 소개해야하고 신입생 O.T도 준비해야 하는등 새내기맞이 사업에 분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기가 마무리 되어갈때쯤에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여성문제를 연구하라는 거창한 명제로 모은 새내기 일꾼들에게 단순히 학습이라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모임 일꾼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1소모임 1사회단체 연대하기" 이는 단순히 학습으로만 채워진 이론들을 검증하여 보고 직접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는 탁아활동을 한다든지 여성회나 여노회, 여농회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연대를 가져가면서 성폭력이나 취업차별에 대한 사례도 알아보고 여성 농민의 삶도 알아보는등 실전에서 다양한 여성문제나 성에 관한 문제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시기 여성문제에만 국한시켜 이해되던 것들을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또한 될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하였습니 다. 백번 학습하는것보다 한 번 시작한 연대로서 이론으로 얻은 과제들을 실천해 나갑시다. 또한 연대의 관점 확립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모임으로 묶이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함께하

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사업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모임에 대한 고정사업이 생기고 학우들에게도 다가서기 쉬워질 것입니다. 머리론만의 이해가 아닌 가슴으로 여성문제의 본질을 느끼고 연구해 갈 수 있도록 소모임의 성격에 맞는 1소모임 1사회단체 연대를 일구어 내었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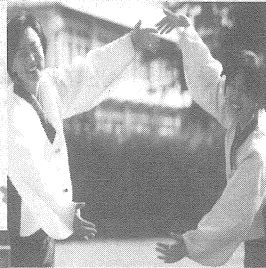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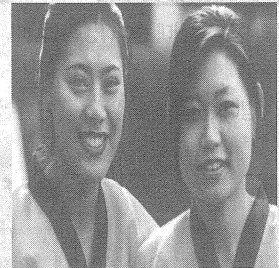
2. 단계별 학습을 진행합니다.

소모임 운영에 있어서 학습일정을 잡는 것은 어떤것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모임의 건설역사가 오래지 않아 학습의 내용을 잡아하는데도 많은 한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이 알려진 여성관련 (또는 소모임의 성격에 따라 성관련 도서)도서를 무턱대고 학습도서로 선정하고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지리하고 결과가 뻔한 논의과제를 고민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기 위해서는 학습도서의 선정도 중요하고 세계의 흐름과 국내적 흐름에 맞는 여성문제에 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못지 않게 중요하게 나서는 것이 학습 받는 사람들을 단계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종화된 학습의 진행은 소모임활동을 2~3년째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흥미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배운 학습의 내용들을 새내기들에게 학습해주면서 자신의 위치도 잡아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하여 학년별로 너무 나누어 생활하다보면 동지애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시기별로 소모임 전체 일꾼이 함께할 수 있는 전체 학습의 일정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끼리를 잡을때에는 여성문제에만 국한시켜 볼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해와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도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는 여성문제는 반만년 역사와 오랜 시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제의 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성문제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경남대 소모임 "참뵈" 이름을 보면 쉽게 '참되게 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참뵈'의 원뜻은 참은 새로움을 의미하는 접두어이고 뵈은 희망 즉 여성해방을 의미한다는군요. 즉, 여성해방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결의가 높으신걸 보아 굳은 의지로 활동을 잘 가져갈것 같습니다. 96년 건설되어 올해로 2년째로 접어들고 주 학습끼리는 성문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0551-49-2752) 부산대 소모임 "여울수" 96년 건설이 되어 올해는 3기를 맞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창립기와 27기 활동을 가져갔고 97년은 37기의 활동이 시작된다 합니다. (051-510-1924) 인제대 소모임 "뿔뿔" 성문제 연구소 뿔뿔은 학과에 집중된 새내기가 들어와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신입생 가입으로 뿔뿔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25-20-3062) 동아대 단대소모임 "햇살" 부경여대협 산하의 소모임중에서는 3월초에 신입생 맞이 모꼬지를 다녀오는등 가장 빠른 활동을 가져오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뿔뿔이 역시 학년이 높다보니 학년에서 나오는 연륜이 빠른 활동을 가져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051-200-6569 동아대 경연대 여학생회) 경성대 소모임 "갈정기" 부회장님 중심으로 소모임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입생맞이 활동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

을 것 같습니다. (0591-591-5751) 경성대 소모임 "성문제 연구소" 부경 여대협 산하의 소모임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모임 일꾼들이 총여학생회의 일꾼들로 재생산 되는등 모범적 활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활동이 주춤하고 있지만 그 힘찬 기대를 하여도 좋을 곳입니다. (051-620-4872) 부경대 소모임 소모임으로 묶인 많은 남학우들로 인해 총여학생회방이 언제나 북적거린다 합니다. 여성문제나 성문제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열심히 보여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소모임을 움직이는 일꾼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051-620-6382) 울산대 소모임 고학번 선배의 진두지휘로 학습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성의 한계로 소모임활동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학년이 말 해주듯 그 어느 소모임보다 활발한 활동을 가져가리라 믿습니다. (0522-259-2797) 창원대 소모임 96년 부경지역의 조직적 요구로 소모임이 건설되어 96년에는 정례화된 학습의 진행등 꾸준한 활동을 가져왔으나 지금은 총여 중앙에 소모임평안 결함이 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모임평의 의욕적 활동으로 97년은 기대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51-79-7962)

4기 부경여대협 소속학교는 이렇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울산 지구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건) 의장 정경윤(인제대 총여학생회장)

인제대는 97년 현재 5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 긴 역사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5대를 맞이한 97년까지 발전을 거듭해왔다.

4대에서 5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간부들이 여학생운동을 결의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올해 인제대는 부울여대협(건)을 결의하면서 인제대 여학생운동을 한층 더 강화,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인제대 총여학생회는 97년은 단대여부와 과여부의 조직적 체계를 세워내고자 하고 이에 여부의 필요성과 여학생운동의 이해를 높여내고자 골간체계의 간담회 등의 만남을 가져갈 것이다. 또한 골간체계의 여학우 일꾼들을 묶어내는 공간으로 '여학우 일꾼학교'를 작년 4대부터 힘차게 열어냈고 올해도 많은 고민을 가져가고자 한다. 그리고 잘못된 성인식과 성상품화의 범람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월 초에 '성교육학교'를 열어냈고 앞으로도 성문제연구소 중심으로 벌여내고자 한다.

5대 참된 주인 총여학생회는 보건대 여학생국장, 공대 여학생부장 2명의 운영위와 정책, 선전, 성문제 연구소장, 기획, 선전기획, 일상선전, 연사, 생활문화 7명의 집행부와 인제대 4천 여학우를 책임지고 학원에서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인현벌의 한별관에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통일단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부울의장님 중심으로 부경여대협 강화하고 전여대협 강화하자!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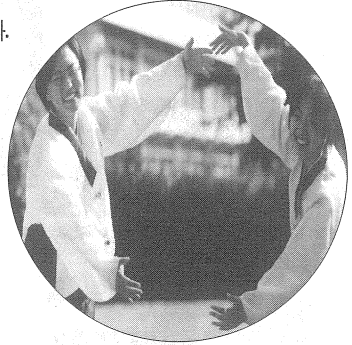
구국의 선봉 부산대 총여학생회입니다.

4기 부경여대협 의장님을 배출한 단위로써 언제나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의 모범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97년 사업은 학내 성폭력 학칙 제정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 소모인 '여울술'이 9대 총여학생회의 든든한 안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늘 2만 민족 효원 학우와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

경성대 총여학생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경지역 여학일꾼 여러분 열심히 투쟁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경성대 여학일꾼들입니다.

경성대 총여학생회는 과, 단대 여학생부와 중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 이과대, 공과대 여학생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산하기구로 '성문제 연구소'라는 자치기구를 두어 여학생운동의 전문성을 높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살이 되고 자주적 여학생회는 8기를 맞고 있는 경성대는 언제나 밝고 힘있는 모습, 그리고 정이 넘치는 생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경여대협 의장님을 중심으로 부경여대협을 강화하고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일구는 그 길에 경성대 또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학일꾼 힘냅시다. 빠샤!!!!



동아대학교

민족동아는 개교 반세기의 자랑스러운 역사속에 112년의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일구어나가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정, 부회장을 비롯하여 5개 단대 여학생회 회장님과 1개 단대 여학생부장님,

1개 단대여학생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과대학은 정, 부회장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동아에서는 여성주간과, 가시버시, 건강한 대학촌 만들기

그리고 농촌활동에서는 여농반을 그리고 여성화와 연대하여 살아가고, 탁아사업을 하기도하여

식민지인 조국 한반도를 개척하는데 7천 여학우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부경대학교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통일부경 1대 자주함성 총여학생회입니다.

저희 학교는 약 20여개 여학생회와 여학생부가 있습니다. 구 수산대 여학생운동의 12년 역사를 계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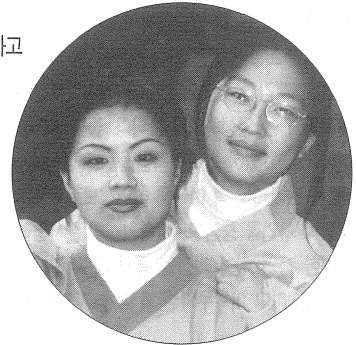
구 공업대의 6년간의 여학생부 존재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자주적 여학생회를

다시 한 번 힘차게 건설했구요, 힘차게 97년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 단대 주체가 탄탄히 서지 못했지만 올 한 해 단대 주체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나갈 것입니다.

부경여대협 일꾼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울산대학교

안녕하세요? 울산대 총여학생회입니다. 항상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수렴하기 위해, 여학우들의 소리통이 되고자 소리통 총

여학생회입니다. 저희는 일상사업으로 여학생휴게실에서 금요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학우들을 일상적으

로 만날 수 있는 여학생 휴게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총여학생회의 가장 큰 사업은 남녀공

학이고 5월 초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은 남녀공학 자봉단을 구성하고 있어

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3회를 나눠서 할 예정이에요

울산대 총여는 골간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대 여부는 아직 건설되지 못했고 6개과의 과여학

부가 있습니다. 행정학과 여부에서는 한달에 한 번 사회대 남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비디오를 상영

할 예정이고, 전산과 여부에서는 한 번 씩 모임이 있을 때는 식당 하나를 다 빌릴 정도로 많은 여학

우가 모입니다. 체육과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는데 1, 2, 3학년은 참석이 의무입니다. 올해는 여학

부가 건설된과는 더욱 더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못한과는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

고 그것을 기반으로 단대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울산대 총여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마산·창원지구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김혜정(창원대 총여학생회 회장)

1970년

올해로 13대가 되는 창원대 총여학생회는 현재 5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중앙집행부 그리고 중앙소모임 '여성문제토론회'가 있다. 집행력이든지 회계계에서 다소 미비함이 있지만 여학일꾼 개개인의 높은 결의들로 '북한바로 알기' '농활' '탁아사업' '여학생 신문발간' 등의 힘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96년 건설된 여성문제 토론회는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기에 올해는 여성문제 토론회의 자리를 확고히 잡는데 주력해 내년에는 총여학생회 회칙에 많지 않지만 넣고자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진행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늘 지구운동의 모범으로 우뚝서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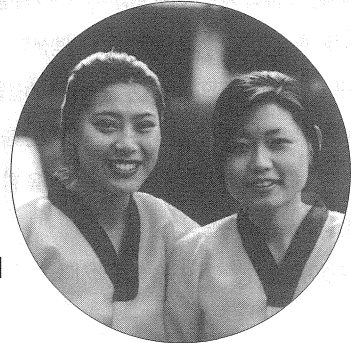


경남대학교

여학우의 긍정성과 더불어 받고 힘찬 모습으로 97년 한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5천의 사랑으로 참세상 열어가는 애국 경남대 13대 당찬 총여학생회입니다. 경남대 총여학생회는 현재 4명의 운영위원과 5명의 중앙집행부, 그리고 중앙소모임인 성문제연구회 '참봄'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출범을 거점으로 올 한 해 중심으로 풀어나갈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강화 부분으로 단대내 과여학부를 탄탄히하고 여학생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과여학부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내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추방운동과 함께 제도적 측면으로 학칙개정에 있어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성모순 척결운동에 있어 여대생 취업을 중심으로 끌어가며 여대생 취업정보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1학기엔 여론사업을, 2학기에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이행 과정을 통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여학우상을 잡아가도록 할 것이며 5천 여학우의 가슴가슴마다 여학우의 힘과 당찬 기백을 심고자 할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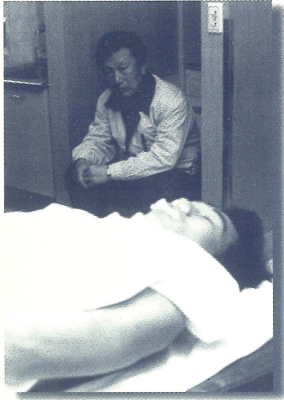
진주·충무지구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건) 의장 허숙희(경상대 총여학생회 회장)

민족경상대학교 13대 총여학생회는 진주, 충무지구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건)를 받아안고 있으며, 8개 단대 여학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여성문제연구소모임은 법대에 민들레, 독어독문과에 숨소리가 있으며 여러곳에 모임구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족 경대 자주총여는 매년 크게 성교육강좌, 여성주간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여성농민회등 지역사회와 농활 등을 통하여 여대하고 있으며, 삼일유치원 성추행사건 대책위에 결할하고 있습니다.





故 류재을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이대로 열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열사에 대한 혁명적 의리로 전사로 다시 태어나라

그대 청년여학도여

10만 부경여대협 선봉으로 전민항쟁 실현하여 김영삼을 조기에 반드시 타도합시다.



故 류재을 열사가 죽던날 경찰은 살인무기인 쇠도리끼를 등장시켰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이제는 시위진압을 위해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권의 폭압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기에 역사는 바뀌어갑니다.

연세대항쟁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투쟁을 위해 투쟁합시다!!!

정권은 애국 청년들의 순수한 통일에 대한 열정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갖은 폭행·구타를 자행하였습니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여학생에게 성적 폭언, 성추행,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피해 여대생들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힘겨운 법정투쟁을 하였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여대생 성추행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하였다하여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법정투쟁은 시위경찰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정권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집회 관련 학생연행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한 성폭행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96년 연세대항쟁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투쟁을 부경여대협 선봉으로 벌여가겠습니다.

학우여러분의 많은 지지·지원 바랍니다.

부경여대협 간부지 「여대생」
발행인/유하영(4기 부경여대협회장,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편집/4기 경여대협 조직강화국
주소/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4층 총여학생회실(051-510-1924)
나우누리ID 부경총여